

디지털 콘텐츠와
함께 하는
자습서

중 / 학 / 교

국어 2-1

박영목 외

1 문학 작품의 관점	02
2 독서와 발표	09
3 담화와 의사소통	18
4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26

모의 평가

중간 모의 평가	35
기말 모의 평가	45





1. 문학 작품의 관점

(1) 엄마 걱정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① | 23~28쪽

1 ③ 2 ⑤ 3 ③ 4 ⑤ 5 ⑤ 6 ③ 7 ⑤ 8 ② 9 ④

- 1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이라는 시행을 통해 성인이 된 ‘나’가 아직도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갔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엄마가 시장에 나가 열무 파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금 간 창틈”이라는 시구에서 유년 시절 화자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④ 화자는 1연에서 어린 시절 빈방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렸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2연의 “아주 먼 옛날”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1연에서 제시한 유년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는 어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화자는 유년 시절 혼자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 슬픔, 서글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홀가분하다는 것은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고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 3 “찬밥처럼”, “배춧잎 같은”에는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직유법이 쓰였다.

지식+

비유의 종류

- ① 직유법: ‘~같이’, ‘~처럼’, ‘~인 양’, ‘~듯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굴 같이 둥근 해, 앵두처럼 붉은 입술
 ② 은유법: ‘~은/는 ~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두 대상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붉은 고양이로다, 내 마음은 호수요.
 ③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 빨래들이 춤을 춘다.
 ④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꼬리를 감추며 달리는 기차
 ⑤ 대유법: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징을 들어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 식량

- 4 ‘윗목’은 서늘한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엄마를 기다리며 무서움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던 화자의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5 엄마가 이고 간 열무와 관련지어 해가 지는 것을 시한다고 표현한 시구이다. 열무가 시들 만큼 엄마가 시장에 가신 지 오래되었음을 나타낸다.

- 6 ‘나’는 유년 시절 시장에 가신 엄마를 혼자 기다리며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일찍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원망하는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 7 화자를 달리하여 시를 쓸 때에는 화자를 누구로 정할지 생각해 보고 그 화자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주제)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화자를 바꾸면 시의 분위기, 화자의 정서, 주제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자를 달리하여 시를 쓸 때 기존 시와 내용이나 주제가 달라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8 제시된 시에는 혼자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9 이 시는 ‘딸기’를 화자로 설정하여 딸기가 자라서 이동하기까지 주변 환경과 농부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딸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고 제값에 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① | 29쪽

1 ⑤

- 1 오징어를 묶어 세는 단위는 ‘축’으로, ‘오징어 한 축’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한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이른다. ‘접’은 채소나 과일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이고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이르는 말로, ‘배추 두 접/마늘 한 접/감 두 접’과 같이 쓰인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① | 31쪽

01 ② 02 ③ 03 ④ 04 화자에게는 유년 시절이 잊목처럼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잊목”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05 ④

01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직유)”, “내 유년의 잊목(은유)” 등 비유를 써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넘기

- ① 이 시의 화자는 ‘나’로, 겉으로 드러나 있다.
- ③ 1연은 어른이 된 화자가 회상하는 자신의 유년 시절의 상황이다.
- ④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아직도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⑤ 유년 시절의 가난하고 외로웠던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둡고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02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청각적 이미지)를 ‘배춧잎’(시각적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하여 엄마가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3 ㉠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를 통해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에게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이 더욱 무섭고 쓸쓸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안 오시네”, “안 들리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을 강조하며 외롭고 쓸쓸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

오답 넘기

- ㉢ 화자는 비 내리는 날 빈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를 마중 나갔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 성인이 된 화자에게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의 기억은 슬픔으로 남아 있다.

04 **서 | 술 | 형** ‘잊목’은 서늘한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화자는 유년 시절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에 눈물을 흘렸다. 화자에게는 이러한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유년의 잊목”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이다.

05 시의 화자를 ‘나의 친구’로 바꾸면 엄마를 기다리는 친구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화자를 바꾸더라도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엄마 걱정>과 같이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2) 동백꽃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① | 34~52쪽

1 ④ 2 ① 3 ① 4 느 집엔 이거 없지? 5 ② 6 ④ 7 ② 8 ⑤ 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점순이가 ‘나’의 닭을 꺼내어 또 닭싸움을 붙일까 봐 염려하였다. 14 ⑤ 15 ④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② 21 ② 22 ④ 23 ⑤ 24 ①

1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나’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점순이의 심리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나’가 판단한 대로 서술될 뿐이다.

2 이 소설은 ‘나’의 집 수탉과 점순네 수탉이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하였다가 ‘나’가 나흘 전에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3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귀한 음식인 감자를 준 것이다.

4 “느 집엔 이거 없지?”는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주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 감자를 거절한다.

5 점순네는 ‘나’의 가족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이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집을 짓도록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나’의 집이 점순네에 얹혀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넘기

- ①, ④ ‘나’의 집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기 때문에 마름인 점순네에게 일상 굶질거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점순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 ③ ‘나’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소작인이다.
- ⑤ ‘나’의 집은 농사 때 양식이 모자라면 점순네에게 꾸어다 먹었다고 하였다.
- 6 점순이는 ‘나’를 향한 호감의 표시로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해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면서 ‘나’에게 분풀이를 하고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 7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나'가 점순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 '나'가 점순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 8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틈틈이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을 싸움 붙인다. 게다가 '나'의 집 수탉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모이를 쥐고 와서 꼬여 내어 싸움을 붙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점순이가 집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9 '나'는 점순이가 계속해서 닭싸움을 붙이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순이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려고 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보기

- ① '나'의 닭과 점순네 닭이 또 싸우게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④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점순이에게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순네 수탉을 이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⑤ '나'는 삼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기운이 뻗진다고 믿고 점순네 수탉과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며 '나'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였다.
- 10 '나'가 고추장을 먹여서 자기 집 수탉의 힘이 강해졌다고 믿는 모습에서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 11 점순이는 상황이 역전되어 다시 '나'의 집 수탉이 공격을 당하자 '나'를 약 올리기 위해 보란 듯이 크게 웃고 있다.
- 12 '나'는 자신의 계획과 달리 '나'의 닭이 점순네 닭에게 다시 공격을 당하자 허탈해한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오답 보기

- ③ ①에는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 ④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짐작하여 드러내고 있으나 ⑤에는 점순이의 마음을 짐작하여 드러내는 내용이 없다.
- ⑤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의 심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①에서도 '나'의 심리만 전달하고 있다.
- 13 (11)에서 '나'는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우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있다. '나'는 점순이가 또 '나'의 집 닭을 꺼내어 싸움을 붙일까 봐 걱정되었을 것이다.

- 14 (12)는 절정 부분으로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탉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오답 보기

- ① 노란 동백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점순이를 향한 '나'의 미움과 분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나'는 그동안 점순이가 마름의 딸이기 때문에 울타리나 치며 닭싸움을 못하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만, (12)에서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점순네 수탉을 죽이게 된다.
- ④ 절정 부분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15 (12)에서 '나'는 점순이가 붙여 놓은 닭싸움에 자신의 닭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태연하게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게 된다. 이를 본 점순이가 “누 집 닭인데?”라며 나무라자 '나'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게 될까 봐 겁이 난다.

- 16 '나'가 점순네 수탉을 때려죽이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두려움에 떠는 '나'를 점순이가 달래면서 두 사람이 화해하는 계기가 된다.

- 17 '나'는 점순이가 한 말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턱대고 “그래!”라고 대답한 것이다. '나'가 호의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대답한 것이 아니다.

오답 보기

- ①, ⑤ '나'는 자신의 집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울고 있는데 점순이가 닭을 죽인 것을 이르지 않겠다고 하자 걱정이 사라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③ 동백꽃 향기에 정신이 아찔하였다는 표현에서 두 사람의 화해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④ 점순이는 '나'가 이제부터 안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하고 닭 죽인 것을 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18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는 ‘동백꽃’이다. 이 소재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와 점순이의 사랑과 화해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 19 점순이가 '나'를 향한 호감으로 감자를 주지만, 그것을 '나'가 거절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 20 닭싸움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소재이다.

- 21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 대화하고 싶어 한다.
- 22 서술자인 ‘나’는 눈치가 없고 둔하며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래서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 23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므로 ‘나’의 생각과 심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다른 인물의 심리는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 ‘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점순이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엉뚱하게 파악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24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심리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오답 넘기

- ㉔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의도가 다 드러나서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어수룩한 ‘나’가 서술자일 때보다 해학적인 분위기도 덜해진다.
- ㉕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나’의 속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 ㉖ ‘나’와 점순이의 상황을 점순이의 관점에서 전달하게 된다.
- ㉗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행동은 서술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❶ | 53쪽

1 ㉓

- 1 ‘암팡스럽다’는 “몸은 작아도 야무지고 다부진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큰 몸집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❶ | 56~58쪽

- 01 ㉔ 02 ㉑ 03 ㉓ 04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함. 05 ㉓ 06 ㉔ 07 ㉒ 08 이제 내 마음을 모르는 척 하지 않을 거지? / 이제부터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09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10 ㉑

- 01 이 소설은 농촌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인물로, 이러한 인물의 특성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 ‘헛소리, 봉당, 씨암탉’ 등의 토속적인 어휘가 사용되어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오답 넘기

- ㉑ ‘오늘 → 나흘 전’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㉒ ‘나’와 점순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02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로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03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며 간접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지만,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가 자신이 잘사는 것을 과시하려고 감자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감자를 거절하였다.

오답 넘기

- ㉑ 점순이는 감자를 주면서 ‘나’를 향한 호감을 전하고자 하였다.
- ㉒ ‘나’는 점순이가 왜 자신의 닭을 괴롭히는지 알지 못하고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고추장을 먹이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
- ㉓ ‘나’는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하였다.
- ㉔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호감을 표현했고,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서운한 마음과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에 닭싸움을 시켰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조심히 행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4 서 | 술 | 형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원인은 (다)에 제시되어 있다.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후로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자기네 닭과 ‘나’의 집 닭을 싸움 붙였다.

- 05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감자를 준 이유,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닭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고추장을 먹이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나’는 눈치가 없고 순박하며 어수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악하고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나’는 점순이에게 당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점순네 수탉을 이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힘이 강해져 점순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07 ‘나’는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터냐?”라는 점순이의 말의 의도를 모른 채 무턱대고 대답하고 있다. 또 점순이가 어깨를 밀어 쓰러뜨린 것을 뒤에 떠밀려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여전히 점순이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가)에서 ‘나’는 한때 점순이를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라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③ (가)에서 ‘나’는 ‘나’의 닭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없이 호드기만 붙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에 분노가 극에 달한다.
 ④ (가)에서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드기를 붙여 ‘나’를 약 올리고 있다.
 ⑤ (나)에서 ‘나’는 화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였는데, 점순이의 말을 듣고 땅이 떨어지고 집이 내쫓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울고 있다.

- 08 **서 | 술 | 형** 점순이는 ‘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09 **서 | 술 | 형** 노란 동백꽃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두 사람이 함께 동백꽃 속으로 파묻히고 ‘나’의 정신이 아찔했다는 표현에서 ‘나’가 점순이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생기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 10 <보기>의 서술자는 ‘나’(점순이)이고, (다)의 서술자는 ‘나’(삼돌이)이다. <보기>는 점순이의 관점에서 (다)는 ‘나’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어 둘 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오답 넘기

- ② <보기>에는 점순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 (다)보다는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이 덜하다.
 ③ (다)와 <보기> 모두 서술자가 ‘나’로, 이야기 안에 등장한다.
 ④, ⑤ (다)는 ‘나’(삼돌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보기>는 ‘나’(점순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 자신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더 읽어 보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1 | 65~69쪽

- 1 ⑤ 2 (1) ○ (2) × (3) ○ 3 ③ 4 ④, ⑤ 5 ⑤ 6 관점

- 1 이 시에서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등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화자는 ‘당신’

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나’가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2 (1) 선배가 왜 볼 때마다 벽에 붙어 다니느냐고 묻자, ‘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선배가 ‘나’에게 왜 벽에 붙어 다니는지 묻는 것을 통해 ‘나’가 왜 벽에 붙어 다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나’는 선배의 질문에 자신의 습관이 초등학교 때 생긴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 3 ‘나’는 다른 곳에 집중하느라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 4 청각 장애인인 작가는 자신이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만화에 담았다. 비장애인에게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청각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이 청각 장애인에게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5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불빛으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낮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6 보통 낮이 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불빛으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책 1 | 70~73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윗목’에 비유했다.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06 ② 07 화자를 딸기로 설정하여, 딸기의 관점에서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8 ③ 09 ④ 10 ④ 11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둔하고 눈치가 없어서 소설이 해학적인 분위기를 띠게 한다. 12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3 ② 14 ② 15 ⑤

01 (가)에는 엄마를, (나)에는 손님을, (다)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02 1연에 화자가 유년 시절 빈방에서 혼자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던 상황이 드러나 있다.

오답 넘기

- ① 화자는 지금도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으므로 즐거운 추억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화자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③ 날이 어두워졌는데 비까지 내려 ‘나’의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
- 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에서 화자의 엄마가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여, 엄마가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4 제시된 시는 자식을 두고 시장에 간 ‘나’가 화자이며, 자식을 홀로 집에 두고 와서 걱정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현재 지난날 아이를 혼자 두었던 일을 회상하며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오답 넘기

- ①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갔었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 등의 표현을 통해 이 시의 화자를 알 수 있다.
- ② 먼 옛날 시장에 나갔을 때 빈방에 홀로 있을 아이를 걱정했던 마음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빛’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3연에 화자가 집에 빨리 갈 수 없었던 상황이 드러나 있다.

05 서 | 술 | 형 화자는 무서움과 외로움에 떨며 엄마를 기다리던 유년 시절을 차갑고 시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가)의 2연에서 ‘윗목’이라는 시어를 정확히 찾았다.	
화자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를 포함하여 ‘윗목’이라고 표현한 까닭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06 (나)의 화자는 농작물의 가치를 알고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서 | 술 | 형 (나)는 딸기를 화자로 설정함으로써 딸기의 관

점에서 내용을 실감 나게 표현하여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투리를 쓰는 딸기가 화자여서 시를 감상하는 재미도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나)의 화자가 딸기임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관점’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딸기를 화자로 설정한 까닭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08 ‘나’가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다는 것과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당신’을 기다린다는 것에서 ③과 같은 말을 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당신’이 ‘나’를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② ‘당신’은 ‘나’에게 무심하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 ④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 ⑤ ‘나’는 ‘당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09 (라)는 ‘나’의 집의 처지를 알려 주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나’가 점순이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점순이가 자신이 마름의 딸이라는 이유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미워서 화풀이를 하며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뿐이다.

10 ‘나’는 눈치가 없고 둔하여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④는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넘기

- ① 점순이의 관점에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 제목이다.
- ② ‘나’의 관점에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낸 제목이다.
- ③, ⑤ 점순이와 ‘나’가 아닌 제3자의 관점에서 점순이의 심리를 드러낸 제목이다.

11 서 | 술 | 형 (다)에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감자를 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자를 거절한다. 또 (나)에서 감자 사건 이후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둔하고 어수룩한 ‘나’의 모습은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자의 웃음을 자아낸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나)~(다)에서 알 수 있는 서술자 '나'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였다.	
서술자의 특성이 작품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2 서 | 술 | 형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점순네에게 늘 굶질거린다고 하였다. 이런 두 집안의 관계 때문에 '나'는 점순네 닭을 후려치지 못하고 헛매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나'가 헛매질만 한 이유를 (라)를 참고하여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3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나'는 자신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지만, 점순이의 말과 행동, 심리는 자신이 판단한 대로 서술한다.
- 14 닭싸움을 보던 '나'가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죽이게 되는데 이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닭싸움이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15 ㉠에서 '나'는 점순이가 한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이의 용서를 바라며 무턱대고 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책 ① | 74~75쪽

- 1 ㉠, 피곤하고 지친 어머니의 발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저는 여전히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슬픈 느낌이 듭니다.
- 2 <보기>의 화자는 (친구를 걱정하는) '나'이다. (가)의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이고, <보기>의 주제는 '혼자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다. 3 ㉠: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4 (나)의 서술자는 삼돌이고 <보기>의 서술자는 점순이다. (나)와 비교하여 <보기>는 점순이가 이야기를 전달하므로 (나)에서 '나'(삼돌이)가 몰랐던 점순이의 행동의 의도와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이 덜하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해진다.

- 1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엄마가 피곤하고 지쳐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인이 된 ‘나’는 아직도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적절하지 않은 답변으로 ㉠, ㉡을 정확히 찾았다.	
㉠, ㉡을 적절한 대답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 2 (가)는 ‘나’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외로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는 혼자 엄마를 기다리는 친구를 걱정하는 ‘나’가 화자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보기>의 화자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가)와 <보기>의 주제를 비교하여 적절히 서술하였다.	

- 3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을 듣고 점순이가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감자를 주었는데, 이것이 거절당하자 무안하고 화가 났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에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에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의도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 4 (나)의 서술자는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나’(삼돌이)이다. ‘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여 독자에게 재미를 주고 어수룩한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어 더 순박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보기>는 (나)에 등장하는 점순이를 서술자로 하여 다시 쓴 것이다.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면 점순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되어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이 덜하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덜해진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나)와 <보기>의 서술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밝혔다.	
(나)와 비교하여 <보기>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가지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1 (1) ③ (2) ④ (3) ② (4) ① 2 ① 화자 ② 눈시울 ③ 윗목 ④ 서술자 ⑤ 대거리 ⑥ 수작 ⑦ 생색

② 눈	시	울	담	하	다	타
사	대	호	④ 서	기	운	박
⑦ 생	색	어	술	사	가	김
오	장	① 화	⑥ 자	수	직	박
전	금	다	생	물	작	사
③ 윗	소	순	이	⑤ 대	거	리
대	목	이	질	말	쪼	간

2. 독서와 발표

(1) 읽기의 생활화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❶ | 83~93쪽

1 ③ 2 ①, ② 3 ③ 4 ① 5 ⑤ 6 ④ 7 ③ 8 ④ 9
② 10 ⑤ 11 ⑤ 12 ④

1 글쓴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산악반 활동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3학년이 되어 특별 활동을 선택할 때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도서반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오답 넘기

- ① 특별 활동반을 선택할 때 글쓴이의 꿈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도서반을 선택했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뒷부분의 내용(85쪽)으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는 도서반 활동을 하며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④ 특별 활동으로 담임 선생님이 맡고 있던 산악반 활동을 한 것은 3학년 때가 아닌 2학년 때의 일이다. 3학년 때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도서반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2 글쓴이는 도서반 활동을 하기 전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데, 박지원 소설의 문체나 내용이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3 글쓴이는 중학교 시절의 읽기 경험을 회상하며, 지금 자신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도서반 활동을 하며 읽었던 박지원의 소설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박지원의 소설은 글쓴이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글쓴이가 고전을 읽으면서 무협지를 읽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고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지만, 무협지를 계속 읽었는지의 여부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글쓴이가 박지원의 작품을 읽으며 고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박지원의 삶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글쓴이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특별 활동 시간이 없어서 도서반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 ⑤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읽기의 가치를 깨달아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4 읽기를 통해 정신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으나 드넓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 준다는 내용

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글쓴이는 책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였다.

6 글쓴이는 도서관 활동을 하며 박지원의 <허생전>을 처음 읽게 되었다. 글쓴이가 평소에도 고전에 관심이 많았는지, 박지원의 소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넘기

- ① 글쓴이는 3학년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 부라고 하였다.
- ② 도서관 선생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으라고 지도했고,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골라 읽었다.
- ③ 글쓴이는 도서관에서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읽기가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⑤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경험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7 글쓴이는 무협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박지원의 소설에 쓰인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였다.

8 마지막 문단에서 녹차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오답 넘기

- ① 녹차는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녹차를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녹차를 기호 식품으로 즐긴다고 하였다.
- ②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 ③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헹구면 증상이 덜해진다고 하였다.
- 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 뽀루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고 하였다.

9 이 글의 주제는 개를 기를 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이 글은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 대신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낫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진 사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 등을 통해 개는 충성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은 반응

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애완견이 많아지는 추세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④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10 읽기를 통해 글쓴이, 혹은 글 속의 인물과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11 친구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는 것은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읽기 경험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12 다른 사람이 많이 본 책만 골라 읽기보다는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선정해 읽되, 점차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는 것이 좋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① | 99쪽

1 ②

1 ‘책망’은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책과 관련이 없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① | 102~103쪽

01 ④ 02 ② 03 ⑤ 04 책을 읽으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 05 ③ 06 ⑤ 07 ② 08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문체와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09 박지원의 책을 읽은 경험 덕분에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었다.

01 이 글은 소설가인 글쓴이가 중학교 때 도서관 특별 활동을 했던 경험을 쓴 수필이다. 글쓴이는 그때 읽은 책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넘기

- ①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던 경험이 제시되어 있을 뿐, 고전을 읽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대화가 아닌 글쓴이의 서술을 통해 읽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명언을 인용하여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서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이 글에는 글쓴이의 독서 방법과 태도만 제시되어 있다.

02 (라)에서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책을 읽음으로써 인류가 쌓아 온 정신문화를 이해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책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03 도서관 선생님은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으라고 지도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 읽도록 한 것이다.

04 **서|술|형** 글쓴이는 통로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책 읽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책 읽기를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05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쓴 수필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상상하여 쓴 글은 소설이다.

지식+ 수필의 특성

- ① 자유로운 형식: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음.
- ② 비전문적인 글: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음.
- ③ 고백적, 개성적인 글: 글쓴이가 겪은 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쓴 글로, 수필을 읽으면 글쓴이의 감정, 가치관 등을 짐작할 수 있음.
- ④ 다양한 소재: 생활 속 무엇이든지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음.

06 (마)에서 글쓴이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고 하였다.

오답 넘기

- ① 박지원의 소설을 읽기 전 무협지를 즐겨 읽은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책 읽기를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글쓴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도서관 활동을 하며 고전의 재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 ③ (라)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읽은 고전이 우리 조상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글쓴이는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을 대조하면서, 무협지는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이름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07 글쓴이는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을 대조하면서 박지원의 소설에서 느낀 고전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에서 박지원의 소설은 무협지와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고 한 것을 통해, 글쓴이가 이를 읽

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 ③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고 하였다.
- ④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넓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였다.
- ⑤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글을 매개로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과 교류하는 듯한 경험을 해 보았다.

08 **서|술|형**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거부감 없이 읽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10대가 되면서 글쓴이가 많이 읽었던 무협지와 박지원의 소설이 문체, 내용 면에서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09 **서|술|형** 글쓴이는 (마)에서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읽은 박지원의 책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현재 소설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 발표하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① | 106~117쪽

- 1 ⑤ 2 큰 목소리로 3 ⑤ 4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 5 ④ 6 ④ 7 ⑤ 8 ② 9 ② 10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1 ⑤ 12 ② 13 ③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 (1)은 발표의 ‘도입’ 단계이다. 대개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발표의 동기나 목적, 주제 등을 말하고, 발표 내용과 순서를 안내한다. ⑤는 발표의 ‘전개’ 단계에서 언급하기에 적절하다.

2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등을 말한다.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 3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의 내용이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4 [화면 3]의 지도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보여 주는 자료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5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크게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입, 기증받기, 대여받기, 정부 간 교섭을 통한 돌려받기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문화재 환수의 방법에 해당한다.
- 6 전달하려는 의미를 표현하는 음성적 요소로는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목소리의 높낮이, 억양)이 있다.

오답 넘기

- ① 자세, 눈 맞춤, 표정, 손짓 등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②, ③ 문화재 환수 방법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적절한 손동작으로 청중의 주의를 끌 수 있다.
- ⑤ 비언어적 표현은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되지 않은 언어 외적인 요소이다.
- 7 (5)~(8)에서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관한 대응 방안 가운데 문화재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환수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말한다.
- 8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면 수량의 많고 적음과 수치의 변화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오답 넘기

- ①, ④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대상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③ 지도를 활용하면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 ⑤ 원 그래프를 활용하면 전체에서 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9 <보기>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문화재가 소장된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현지 활용의 방법의 사례이다.
- 10 (9)의 마지막 문장에 문화재를 현지에서 활용했을 때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현지에서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

- 11 (10)은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10)에 발표자가 새롭게 인식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없다.

오답 넘기

- ① 마지막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였다.
- ②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 ③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④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 해외 반출 유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중간 부분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였다.

- 12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힘찬 목소리(준언어적 표현)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당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는 청중이 평소에 알던 친구들이지만 공적인 말하기이므로 격식을 갖추고 상대를 높여서 말하고 있다. (10)에서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없다.

지식+

올바른 발표 태도

- ① 모두에게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함.
- ② 중요한 내용은 천천히 힘을 주어 강조해 말함.
- ③ 청중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함.
- ④ 청중을 바라보며 밝은 표정으로 말하고, 시선은 골고루 분산시킴.
- ⑤ 화면 옆에 서서 적절한 손짓을 사용하며 말함.

- 13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에는 약탈,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반출과 외교 시의 선물과 같은 합법적 반출,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오답 넘기

- ① 발표자는 발표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몽유도원도>가 현재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 주었다.
- ② <전개 2>에서 외교 시에 문화재를 상대 국가에 선물하는 것은 합법적 반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④ <전개 1>에서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약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하였다.
- ⑤ <전개 3>에서 문화재 환수 방법으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한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이 있다고 하였다.

- 14 발표 주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 등에서 정할 수 있는데, ②의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주제이다.

15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수집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 선정해야 한다.

오답 넘기

- ①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 ② 수집한 자료 가운데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 ④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된 자료인지보다 그 내용이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지, 청중이 이해할 만한 내용인지가 중요하다.
- ⑤ 매체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활용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한다면 신뢰성을 잃게 된다.

16 개요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무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7 발표 자료를 만들 때에는 청중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글자 크기를 너무 작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오답 넘기

- ①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 ② 사진, 그림, 도표 등은 선명해야 뒤에 앉은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다.
- ③ 중요한 부분은 글자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 강조한다.
- ⑤ 발표 자료는 청중이 알아보기 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 발표할 때에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몸동작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몸동작은 적절한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답 넘기

- ①, ② 발표는 발표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자는 청중과 시선을 맞추고 청중의 표정을 보면서 반응과 이해 정도를 살펴야 한다.
- ③ 내용에 따라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 등을 조절하며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④ 발표문이나 발표 자료를 먼저 쳐다보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말 특독 활용 문제

본책 118쪽

1 ㉢ 2 ㉢ 3 ㉢

1 ‘기증’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거저 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2 ‘환수’는 “도로 거두어들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3 ‘교섭’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121~122쪽

01 ㉢ 02 ㉢ 03 ㉢ 04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05 (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06 ㉢ 07 ㉢ 08 ㉢: (가), (나), (다) ㉢: (라) 09 ㉢

01 (가)~(마)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발표이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자는 발표문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반응을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02 발표자는 <몽유도원도>가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는 이 발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넘기

- ① (라)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 ② (다)에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④ (마)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문화재를 환수하는 다양한 방법과 현지 활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03 (다)에서 우리 문화재의 해외 반출 현황을 소개한 후에 (라)에서 반출 유형을 제시하는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오답 넘기

- ① (가)는 발표의 도입 부분이다. 여기에서 <몽유도원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청중의 흥미를 이끌고 있다.
- ② (다)에서 문화재 반출 현황을 제시하며 청중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 ③ (가)~(라)에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사례 제시, 현황 소개, 유형 분석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후에 (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

응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마)에서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의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04 서 | 술 | 형 발표자가 질문을 하면 청중은 질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질문에 대답하며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발표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05 서 | 술 | 형 제시된 자료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이는 (다)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06 발표자는 (마)에서 청중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07 발표 자료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해외 박물관 사진은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발표 자료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보기

- ① (나)에서 대여받는 방법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③ (나)에서 기증받는 방법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④ (가)에서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를 이야기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⑤ (다)의 내용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이다.

08 서 | 술 | 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는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환수하는 방법과 반출된 문화재를 현지 국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다)는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라)는 현지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09 ㉠의 ‘힘찬 목소리’는 발표자가 핵심 정보를 강조하려고 할 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보기

- ④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보완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⑤ ㉠, ㉡의 손짓과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며, ㉢과 같은 목소리의 크기는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지식+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사용하기

준언어적 표현	말의 빠르기 조절하기	말이 너무 빠르면 청중이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말이 너무 느리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의 빠르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함.
	목소리의 크기 조절하기	가장 멀리 앉아 있는 사람도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배에 힘을 주고 크게 소리를 내어야 함.
	목소리의 높낮이 조절하기	높은 목소리는 기쁨, 두려움, 분노 등을 표현함. 낮은 목소리는 침착함, 피곤함, 우울함 등을 표현함.
	억양 조절하기	억양이 단조로우면 청중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억양의 변화가 심하면 듣기 거부할 수 있음.
비언어적 표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하기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해야 함. 고개를 숙이거나 발표 자료만 쳐다보며 말하면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
	청중과 눈 맞추기	발표자가 청중을 두루 살피면서 청중과 눈을 맞추며 발표하면 청중은 훨씬 더 집중해서 발표를 들음.
	부드러운 표정 짓기	발표 내용이 심각한 것이 아니면 살짝 미소를 띤 부드러운 표정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음.
	자연스럽고 적절한 몸동작 취하기	자연스럽고 적절한 몸동작을 취하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고 청중의 주의를 끌 수 있음. 다만 너무 자주 움직이거나 과장된 몸동작을 취하면 산만한 느낌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음.

더 읽어 보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① | 128~133쪽

1 ④ 2 ③ 3 ② 4 ⑤ 5 ③ 6 ⑤

1 김득신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과 그가 유명한 시인이 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학동의 질문에,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오답 보기

- ① (1)에서 학동의 말을 통해 김득신이 유명한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학동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하고, (2)에서 김득신이 자신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학동들의 모습을 귀여운 토끼에 빗댄 것으로 보아, 그가 학동들에게 애정 어린 따뜻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에서 김득신은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을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

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말하고 있다.

- ⑤ (1)에서 김득신의 말을 통해 김득신이 스스로 남보다 머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2 김득신은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었으며 만 번 이상 읽은 옛글만 서른여섯 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3 김득신은 <백이전>의 내용이 드넓고 변화가 많고 읽을 때마다 글이 풍기는 고상한 기운을 새롭게 느낄 수 있어서 1억 번 이상 읽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백이전>을 반복해 읽을 때마다 그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4 김득신의 아버지는 김득신이 남들보다 모자라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대견해하며 칭찬해 주었다.

오답 넘기

- ① 아들이 모자란 것을 알면서도 글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아들의 글을 보고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음을 알 수 있다.
- ② 김득신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대견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③ 주변 사람들은 김득신을 바보라고 혀를 차며 비난하지만 아버지는 이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김득신을 믿어 주었다.
- ④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말하며 김득신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다.
- 5 김득신은 자신의 말을 여전히 의심하는 학동에게 하인과 길을 가다가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자신은 학동보다도 더 명석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학동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는 것이다.
- 6 (8)에서 김득신은 학동에게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책 ① | 134~137쪽

- 01 ⑤ 02 ⑤ 03 ② 04 중학교 3학년 특별 활동 시간에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다. 05 ⑤ 06 ① 07 ④ 08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 0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⑤ 14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이다. 15 ⑤ 16 ①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려는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였다. 17 ③

01 이 글은 소설가인 글쓴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도서관 활동을 하며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던 경험을 쓴 것이다. 읽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무협지는 한두 번 읽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새로운 맛이 우러난다고 하였다. 즉, 무협지는 한두 번 읽으면 흥미가 떨어지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답 넘기

- ① 글쓴이는 도서관에서 고전을 읽고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협지가 언제 쓰인 것인지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무협지를 많이 읽은 글쓴이는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에 별 거부감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무협지와 고전 모두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임을 알 수 있다.
- ③, ④ 무협지와 고전의 주인공이 은둔하여 실력을 쌓은 후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든다는 것으로 보아, 영웅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무협지와 고전의 내용 전개 방식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에는 박지원의 소설이 무협지와 한문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서 | 술 | 형 (다)~(라)에서 글쓴이는 중학교 3학년 특별 활동 시간에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는데, 자신이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경험을 바르게 제시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05 ㉠은 글을 매개로 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좋은 책을 읽고 과거의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를 지닌 ⑤의 명언과 가장 관련이 깊다.

06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 안다고 해서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도서관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이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07 (라)에서 훈장님은 짝막한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이야

기하며, 만 번 이상 읽은 글이 서른여섯 편이라고 하였다. 만 권 이상의 다양한 책을 읽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넘기

- ① (가): 글쓴이는 나이가 두 자리 숫자, 즉 십 대가 되면서부터 무협지에 빠졌다고 하였다.
 ② (나): 글쓴이는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보약처럼 책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책을 읽은 것을 '보약'을 먹은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③ (다): 훈장님은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좋은 글을 많이 읽었으니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⑤ (마):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08 서 | 술 | 형 (라)에서 훈장님은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라)에 제시된 글쓴이의 읽기 방법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문맥을 고려하여 빈칸에 어울리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09 독자는 (마)를 읽고 녹차의 효능을 알게 되었으므로, 글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보기>의 ㉠은 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이가 <백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은 이유이다. ㉡ 또한 고전을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과 가장 관련이 깊다.

11 (가)~(마)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발표이다. 발표할 때에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해야 하며 내용에 따라 말의 빠르기와 목소리의 크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며 말해야 한다.

오답 넘기

- ①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고 상대를 높여서 말해야 한다.
 ② 발표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발표 자료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과 눈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④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이용하거나 매체에서 찾은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서 제시해야 한다.

⑤ 어떤 순서로 말할지, 어느 시점에 자료를 제시할지 미리 생각하고 발표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12 (라)에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받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다)에서 문화재 반출 유형을 불법적 반출과 합법적 반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문화재청의 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 <몽유도원도>가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⑤ (마)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13 (마)는 발표의 마무리 단계이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차례는 발표의 도입 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알고 발표할 내용에 관해 예측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오답 넘기

- ① (가)에서 발표자가 안경이 그린 <몽유도원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나타낸 지도를 제시하면 청중이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③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각화한 자료를 제시하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④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은 문화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주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14 서 | 술 | 형 발표자는 <몽유도원도>가 일본에 있으며,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발표자가 <몽유도원도>를 언급한 까닭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15 이 발표의 주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라)에서 문화재 환수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마)에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라)와 (마) 사이에는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넘기

- ①, ②, ③ 발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어느 한 나라에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이나 종류를 다루는 것보다 전체적인 반출 현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발표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16 서 | 술 | 형 발표자는 ㉠의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설명하려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이 비언어적 표현임을 정확히 밝혔다.	
㉠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17 발표를 시작할 때에는 대개 발표의 목적, 발표 주제를 밝히고 발표 순서를 안내한다. 발표의 ‘전개’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책 ① | 138~139쪽

1 ㉠: 고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2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글쓴이가 책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세계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3 ㉢, ㉣을 삭제해야 한다. 이 발표의 주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 ㉣은 이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환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글쓴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도서관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고전의 가치와 읽기의 가치를 깨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박지원의 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에 글쓴이가 도서관 활동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에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대화체로 서술하였다.	

유사 정답

㉠: 책을 읽으면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정신문화를 접하게 되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글쓴이가 책을 읽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서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글쓴이가 제시한 읽기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책 읽기를 보약을 먹는 것에 비유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3 발표할 내용을 마련할 때에는, 그것이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핵심 정보인지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 발표의 주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은 발표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응 방안 ((다)에 제시된 문화재 환수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삭제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골랐다.	
추가해야 할 내용을 바르게 서술하였다.	
삭제하거나 추가해야 할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4 <보기>는 (라)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자료이다. <보기>와 같은 도표를 자료로 활용하면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환수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자료를 활용할 때 좋은 점 한 가지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자료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유사 정답

〈보기〉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그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어휘 실력 쌓기

본책 ① | 140쪽

- 1 (1) 소장하고 (2) 대여하는 (3) 기증해 (4) 교섭한 2 (1) 비로소 (2) 뒤편지 (3) 말하는지도 3 (1) ㉠ (2) ㉡ (3) ㉢ (4) ㉣ (5) ㉤ (6) ㉥ (7) ㉦ (8) ㉧

3. 담화와 의사소통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② | 22~34쪽

- 1 (1) 발화 (2) 담화 2 내용 3 ⑤ 4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5 ④ 6 ③ 7 ② 8 ② 9 ③ 10 ⑤ 11 ② 12 ③ 13 화자, 청자, 내용, 맥락 14 ③ 15 ⑤ 16 ② 17 방귀를 뀌 것은 제가 아니라고 18 ② 19 ① 20 ②

1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머릿속 생각이 실제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 ‘발화’이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2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전달하려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인 ‘맥락’으로 구성된다.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은 ‘내용’이다.

3 신비의 발화는 각각이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즉, 통일성이 결여되어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답 넘기

- ① 각 발화의 의미는 모두 분명하다.
② 신비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4 유나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발화에 담겨 있다. 나머지 발화는 모두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5 (가)는 (나)와는 달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이 없어서 어색하다. 즉, 응집성이 떨어지는 담화이다.

오답 넘기

- ① ‘운동은 몸에 좋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는 주제는 드러나 있다.
②, ⑤ 각 발화의 내용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표현도 미흡하지 않다.
③ 마지막 발화의 내용만 앞의 발화들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다.

6 (나) 그림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환자의 팔을 만지며 “어떠세요?”라고 물어본 것은 치료한 부위가 아픈지 여부를 알기 위함이다.

- 7 (가)의 화자는 손님이 머리 모양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알기 위해 “어떠세요?”라고 묻고 있고, (나)의 화자는 환자가 치료한 부위를 아파하는지 알기 위해 “어떠세요?”라고 묻고 있다. 즉, (가)와 (나)의 화자는 말한 의도나 목적이 다른 것이다.
- 8 제시된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상황 맥락이 주어져야 한다.
- 9 상황 맥락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목적 등과 관련이 있다.
- 10 역사적·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된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과 관련 있는 요소이다.
- 11 ㉠의 말에 추석 풍습을 고려하여 ㉡과 같이 대답하고, 여학생의 말에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과 같이 대답하여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 12 만화에서 수민이의 아빠는 손님에게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여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반영한 표현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은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 13 담화는 말하는 사람인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 전달하려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인 ‘맥락’으로 구성된다.
- 14 통일성이란 발화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통일성을 갖추려면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 15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주제)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 16 <목표 학습 1>에서 둘째 문단의 문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해야 의미가 더욱 잘 전달될 것이다.

오답 넘기

- ④ 첫째 문단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문장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지식+

접속 표현

접속 표현은 이야기를 이루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장치이다. ‘어제 눈이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라는 접속 표현으로 두 발화가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그래서’가 없어도 세상사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어제 눈이 내린 것과 우리가 외출을 하지 못한 것이 인과 관계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배경지식으로 발화 내용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영수가 도착했다. 우리는 떠났다.’의 두 발화는 어떤 논리·의미적 관계로 이어진 것인지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이들이 과연 하나의 이야기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적절한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두 발화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발화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나아가 이들 발화의 연쇄가 의미상으로도 통일성을 지닌 이야기가 된다.

ㄱ. 영수가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다.

ㄴ. 영수가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다.

ㄷ. 영수가 도착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났다.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물론이고 문단과 문단 등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접속 표현을 잘 부려 쓰는 것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하겠다.

- 임지룡 외,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 17 ‘그렇게’는 앞에 있는 “방귀를 똥 것은 제가 아니라고”라는 표현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 표현은 앞뒤의 발화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응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18 엄마의 발화 의도를 고려한다면 아이는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을 알려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 시 삼십 분이요.”라는 대답이 적절하다.
- 19 이 담화에서 줄리엣은 상대방의 권유를 예의상 한두 차례 사양한 후에 수락하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아요.”라는 손님의 말을 차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 20 편지를 쓸 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쓰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정성을 다해 써야 한다.

오답 넘기

- ㉠ 편지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글이다.
- ㉡ 무조건 내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연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써야 한다.

우리말 특목 활용 문제

본책 2 | 35쪽

1 ㉠

- 1 ‘미담’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문맥 상 괄호 안에는 미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넘기

- ㉡ 마주 대하고 말함. 또는 그런 말.
- ㉢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 ㉣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세상이나 인정을 비판·풍자하는 이야기를 함. 또는 그 이야기.
- ㉤ 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공을 세운 이야기.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2 | 37~38쪽

01 ㉢ 02 ㉡ 03 ㉣ 04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05 ㉡ 06 ㉠ 07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야. 08 ㉣

- 01 신비의 말은 4개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발화의 의미는 명확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오답 넘기

- ㉠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문장이 주제이다.
- ㉡ 유나의 말은 ‘이보다’와 같은 표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 유나의 말은 통일성을 갖추어 전달하려는 바를 파악하기 쉽지만, 신비의 말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02 (가)는 미용실에서 이루어진 담화로 “어떠세요?”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라는 의미이다. (나)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담화로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라는 의미이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 (가)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발화이고, (나)는 치료 부위의 통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의 발화이다.
- ㉢ (가)의 화자와 청자는 미용사와 손님인 관계이고, (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이다.
- ㉣, ㉤ (가)는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한 후의 상황이고,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 03 ㉢에는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는 뒤 문장의 내용을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접속 표현이다.

- 04 서 | 술 | 형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화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 05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늦게 온 학생을 꾸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말하여 선생님이 당황한 것이다.

- 06 명절 풍습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얼마 뒤면 추석이네.”라는 말에 ㉠과 같이 대답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오답 넘기

- ㉡ 임진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한 것이다. 즉, ㉡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말이다.
- ㉢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고려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 ㉤ 제시된 담화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담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07 서 | 술 | 형 파블로는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차렸음에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이라고 말한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답변이 필요하다.

- 08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줄리엣이 차를 권할 때 손님은 “고마워요. 한잔 주겠어요?”와 같이 말하는 것이 좋다.

오답 넘기

- ㉠, ㉡, ㉢ 손님은 예의상 한 번 거절한 것인데, 줄리엣은 이런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화자가 한 말을 거절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 ㉤ 줄리엣이 손님을 배려한다면 우리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여 손님이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차를 권하는 것이 좋다.

(2) 소통과 공감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② | 41~53쪽

1 ③ 2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3 ① 4 ④ 5 ③ 6 ④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13 ④ 14 ③ 15 ③ 16 ② 17 ④

- 1 두 사람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답 넘기

- ① 각각의 발화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뿐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③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은 아니다.
⑤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뿐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못한 말은 아니다.

- 2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3 만화에서 아빠와 민호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어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

지식+

대화의 장점

- 상대방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할 수 있음.
- 상대방에 관해 몰랐던 점을 알 수 있음.
-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

- 4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태도, 감정, 지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야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생김새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넘기

- ① 청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② 청자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청자의 관심사를 화제로 정하면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청자의 지식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5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 6 광수는 은미가 어떻게 하면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감하며 듣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대화가 아니다.

오답 넘기

- ①, ② 은미를 바라보고, 은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③, ⑤ 상대방의 말에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과 같은 말로 반응을 하며 은미가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고 있다.

- 7 찬우는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해하는 은미의 말을 요약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듣고 있다.

- 8 은미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고 속상했는데, 찬우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되었고 속상한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 9 적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여 말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헤아려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 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넘기

- ①, ②, ③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다.
⑤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여 말하는 것은 공감적 대화와 거리가 있다.

- 10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

- 11 ①, ②, ③, ⑤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고 ④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다.

- 12 주말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가자는 광희의 말을 예나가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13 이모는 어린 조카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에 조카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하였다. 즉, 이모는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14 준호의 기분이 안 좋은 까닭은 학급 회의에서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기 때문이다.

오답 넘기

- ① 준호가 친한 친구와 다투어서 기분이 상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준호는 효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④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관해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일 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은 아니다.
⑤ 준호는 학급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이 의견 때문에 친구들과 서먹해진 것이다.

15 준호는 학급 회의 때 자신이 낸 의견 때문에 친구들과 서먹해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다. 효진이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효진이가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주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이다.

16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대본을 만들 때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보기

- ①, ③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한 방법이다.
④, ⑤ 공감하며 듣는 방법 가운데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7 정민이는 상호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상호는 정민이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조언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보기

- ①, ⑤ 상호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정민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짓는 등 정민이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
② “어? 정말?”과 같은 말로 정민이가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고 있다.
③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마음이 복잡하겠네.”라고 정민이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② | 54쪽

1 ①

1 ‘-(으)려고’와 ‘-(으)려고’ 중에서 ‘-(으)려고’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하려고 왔네.”라고 표현해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② | 57~58쪽

01 ⑤ **02**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을 표현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 두 사람은 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03** ⑤ **04** ④ **05** ③ **06** 고개를 끄덕이고,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07** ⑤ **08** ④

01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고 상대방에 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을 뿐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오답 보기

- ①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로 두 사람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한다.
② 민호와 아빠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다.
③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는 등의 생각을 말하였고, 아빠는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는 등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④ “그야 민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지.”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2 서 | 술 | 형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03 (나)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오답 보기

- ②, ④ 공감하며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 주는 것이다.

04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하며 대화했을 때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찬우는 은미가 한 말을 “친구가 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건성으로 들어 마음이 상해 다투었구나.”처럼 요약해서 말하거나,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와 같이 의미를 재구성하여 말하고

있다.

- 06 서|술|형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말을 할 때 어울리는 적절한 몸짓과 표정을 서술해야 한다.
- 07 준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요약하거나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다. ⑤는 준호가 바로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하고 준호의 속상한 감정을 헤아려 말한 것이다.
- 08 예나가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나에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더 읽어 보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② | 64~66쪽

1 ⑤ 2 말하는 사람이 더욱 성의껏 말하게 된다. 3 ④ 4 ①

- 1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의 유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 열심히 듣겠다는 성의를 갖고 임하는 대화로, 진실을 바탕에 깔 공감의 대화이다.
- 2 (4)에서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자신과 시선을 맞추며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면 말하는 사람은 더욱 성의껏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3 (6)에서 맞장구는 말하는 내용을 긍정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말로, 맞장구를 치면 말하는 사람이 더욱 성의껏 말하게 된다고 하였다.
- 4 (7)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넓힐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책 ② | 67~69쪽

01 ③ 02 ⑤ 03 ⑤ 04 그런데, 앞뒤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 문장과 문장을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 05 ⑤ 06 상대방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였다. 07 ④ 08 ⑤ 09 ① 10 친구와 다투고 헤어져서 마음이 좋지 않겠네. 11 ⑤ 12 ②

01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모르면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02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화자의 의도나 목적이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② 선생님은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고 있는데, 학생은 시간을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학생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다.
- ④ 학생이 늦은 것을 꾸짖는 선생님의 말에 늦어서 죄송하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줄리엣은 상대방의 권유를 예의상 한두 차례 사양한 후에 수락하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즉, 손님의 말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아요.”라는 말을 직접적인 거절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04 서|술|형 ‘그런데’는 뒤 문장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표현으로,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③에 알맞은 접속 표현을 써넣었다.	
접속 표현을 넣었을 때의 효과를 ‘문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적절히 서술하였다.	
접속 표현을 넣었을 때의 효과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05 대화를 통해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빠는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06 서 | 술 | 형** 이모는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를 설명하여 조카와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상대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이모가 지닌 의사소통 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하였다.	

- 07** (가)에서 광수는 친구와 다투었다는 은미의 말을, (나)에서 효진이는 친구들과 서먹해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준호의 말을 공감하며 듣고 있다. 광수와 효진이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 08** (가)의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나)의 효진이는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으로 공감하며 듣고 있다. 따라서 (나)의 효진이가 (가)의 광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넘기

- ② 광수는 “저런, 그래서?”, “정말?”이라고 말하며 은미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효진이는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것처럼 말했구나.”와 같이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④ 효진이는 “아,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와 같이 준호의 마음을 헤아려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말하고 있다.

- 09** 두 사람은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이는 (다)에서 제시한 대화를 가장 한 독백으로, 유사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넘기

- ③, ④ 두 사람은 상대방과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⑤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는데, 두 사람은 공유한 내용이 없으므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10 서 | 술 | 형**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적

극적 들어 주기의 한 방법이다. 화가 나서 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후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인다는 은미의 말을 듣고, 은미의 생각이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말해 주면 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은미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였다.	
대화체로 서술하였다.	

- 11** ①~④는 청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적절한 반응을 보였을 때의 효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2** ㉠, ㉡, ㉢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이고, ㉣, ㉤은 바람직한 대화라고 제시하였다.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책 ㉠ 70~71쪽

- 1 담화의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앞뒤 문장을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 ‘그리고’는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으로 수정한 것이다. ㉡은 담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2 손자가 할아버지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3 •엄마가 불쾌함을 느낀 이유: 민주가 상황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의 대답: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음료수 가져다 먹을게요. 4 영주는 수영이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수영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5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해.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든지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는 것도 좋아. “저런, 그래서?”, “정말?” 등과 같이 말이야.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알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단다.

1 담화의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성은 문장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인데, ㉠은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주제와 연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 것이다.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 등을 활용하여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과 같이 ‘하지만’으로 수정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담화의 구성 요건을 정확하게 밝혔다.	
㉠, ㉡과 같이 수정한 이유를 담화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두세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 손자는 대화 상대가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대화의 두 주체를 모두 밝혔다.	
대화할 때 화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유사 정답

손자가 할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3 엄마는 민주에게 스스로 음료수를 가져다 먹으라는 의미로 “민주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민주는 엄마의 발화 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다. 발화 의도나 목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이다.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답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맥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엄마가 불편함을 느낀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민주의 대답을 두세 문장으로 적절히 서술하였다.	

4 영주는 수영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속상해하는데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며 수영이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영이는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영주의 듣기 태도의 문제점을 적절히 밝혔다.	
예상되는 결과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5 만화에서 광수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은미의 말을 듣고 있다. 몸짓이나 표정으로 은미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과 같은 말로 은미가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하며 대화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소극적 들어 주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광수의 행동이나 말을 예로 들어 두 가지 이상 적절히 제시하였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를 한 가지 이상 적절히 서술하였다.	

어휘 실력 쌓기

본책 ㉡ | 72쪽

1 (1) ④ (2) ③ (3) ⑤ (4) ① (5) ②
(3) 관점 (4) 경청했다 (5) 의사소통

2 (1) 견해 (2) 도화선

4.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1) 먼 후일 / 독은 아름답다

❖ 먼 후일

꼭꼭 확인 문제

본책 2 | 81~85쪽

1 ④ 2 ⑤ 3 ② 4 ④ 5 ② 6 ① 7 ② 8 ②

1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지만 ‘당신’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는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를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오답 넘기

- ①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와 같이 3음보의 가락이 드러난다.
④ 1~3연에서 “...면 / ...노라”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3 화자는 입을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반어를 써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넘기

- ①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직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조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상징에 대한 설명이다.

지식+

비유와 상징

- 비유: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있다.
 - 예 온 산이 공중목욕탕처럼 / 색색의 거품으로 부글거리고 있어. → 직유법
 - 내 마음은 호수요 → 은유법
 - 나무들이 / 사위하고 있다 → 의인법
- 상징: 인간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다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
 - 예 <오우가>의 ‘술’ → 지조, 절개를 의미함.

4 이 시에서 ‘당신’이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이 화자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오답 넘기

⑤ 화자는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이 화자를 찾겠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일 뿐 화자와 ‘당신’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5 화자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야 “잊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인 반어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넘기

- ② 역설법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④ 설의법은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좋을 문장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이 시는 동일한 음보의 반복, 동일한 시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8 제시된 시구는 같은 시어의 반복,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또 독자는 리듬감을 느낄 수 있고, 소리 내어 읽는 재미가 있다.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반어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시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독은 아름답다

꼭꼭 확인 문제

본책 2 | 87~91쪽

1 ② 2 ① 3 ③ 4 ⑤ 5 ③ 6 ⑤ 7 ①

1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복어의 독, 친구의 독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불편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소재이다.

- 2 이 시에는 “구린내가 향기롭다, 가시가 너그럽다,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와 같이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오답 넘기

- ② 반어법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설의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의인법에 대한 설명이다.
 ⑤ 반복법에 대한 설명이다.

- 3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친구의 독한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4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복어의 독, 독한 마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 소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였다. 자식은 소중한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 5 “복어알을 먹으면 죽는다”는 이치에 어긋나는 모순된 표현이 아니다.

- 6 역설은 모순된 표현 속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어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모순된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7 ②~⑤는 역설이 쓰인 표현이고, ①은 은유법이 쓰인 시 구이다.

오답 넘기

- ②의 ‘차갑다’와 ‘따뜻하다’, ③의 ‘거짓말’과 ‘진실’, ④의 ‘지는 것’과 ‘이기는 것’, ⑤의 ‘변화하는 것’과 ‘영원’은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② | 92쪽

1 ②

- 1 ‘단내’는 달콤한 냄새를 뜻하는 단어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넘기

- ⑤ 자릿내는 “오래도록 빨리 아니한 빨랫감에서 나는 흰 듯한 냄새.”라는 뜻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② | 95~96쪽

- 01 ② 02 ① 03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여 슬픔과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04 ①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둘의 공통점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11 차갑지만 따뜻한

- 01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다. 이 시는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이 화자를 찾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02 이 시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넘기

- ④ “먼 훗날V당신이V찾으시면”과 같이 한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된다.
 ⑤ 1~3연에서 “...면 / ...노라”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 03 서 | 술 | 형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당신’을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 04 이 시에서는 화자가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어를 써서 속마음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에는 당신이 떠난다면 슬퍼서 눈물이 펄펄 날 것 같지만,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가 사용되었다.

- 05 ㉠은 반어가 쓰인 부분이다. 반어를 통해 화자의 속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내고, 깊이 있는 감상을 유도할 수 있다. 장면이나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비유의 표현 효과이다.

- 06 화자는 술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자식을 위해 술을 끊은 친구의 마음을 독하다고 표현하였다.

- 07 구린내, 가시, 복어의 독, 독한 마음은 화자가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지닌 것들로, 화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술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다.

- 08 제시된 시구는 역설이 쓰인 표현이다. 표면적 내용과 실제의 의미가 반대로 표현된 것은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넘기

- ①, ③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 ② 구린내가 향기로운 이유는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때문이고, 복어의 독이 사랑인 이유는 복어의 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보통 구린내와 독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모순된 표현을 통해 이것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9 화자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를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냄새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은 은행나무 열매가 다칠 수 있으니 밟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0 서 | 술 | 형 ㉠ ‘복어’는 독을 통해 복어알을 보호한다. ㉡ ‘친구’는 자식을 위해 독한 마음을 먹고 술을 끊는다. 이들은 모두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1 ㉢는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쓰인 표현이다. 제시된 시에서 “차갑지만 따뜻한”도 이치상 어긋나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엄마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 양반전

꼭꼭 확인 문제

본책 ㉡ | 99~110쪽

1 ③ 2 ② 3 ⑤ 4 ④ 5 ③ 6 ⑤ 7 ① 8 ② 9 도둑놈 10 ② 11 ③ 12 ② 13 ③ 14 (불꽃놀이를 즐긴 사람들의) 시민 의식 15 ② 16 ①

1 이 글에 등장하는 양반은 어질고 학문에 관심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

2 부자는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려고 싶어 한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3 (2)에 나오는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은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지만 부자는 평민이라서 항상 비천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이 낮아도 돈이 많으면 대우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넘기

② (3)에서 군수가 양반의 집에 찾아갔을 때 양반은 자신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처럼 벋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있었다.

4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 양반은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넘기

- ① 언제나 오경(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이면 일어나 《동래박의》를 줄 줄 외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말할 때 이를 드러내며 침을 튀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③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가난하단 소리는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 ⑤ 노여워도 아내를 때려선 안 되며, 성이 나도 그릇을 발로 차거나 노비들에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모두 불필요한 형식이나 체면을 차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례허식(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밈. 또는 그런 예절이나 법식.)에 얽매어 있는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6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의 의무만 나열되어 있고 양반이 되면 이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라 실망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군수에게 증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것이다.

7 ㉠은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을 부자가 어길 경우 양반 신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내용만으로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넘기

- ②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두고, 양반이 겨우 이것뿐이라는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 ③ 양반만 되면 부당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벼슬아치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있다.
- ⑤ 권력을 세습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8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내용을 들은 부자는 횡포를 저지르는 양반을 도둑놈과 같다고 여기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9 부자가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부패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10 부자가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은 양반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고 자신이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11 제시된 글에서 양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12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겉치레와 형식적인 관념만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또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무위도식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3 <우리말 사랑 1>에서는 달리기와 조깅, 찬물로 씻기와 냉수로 샤워를 대비하여 고유어보다 외래어나 한자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14 만평에서는 불꽃놀이를 즐긴 뒤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사라진 시민 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15 풍자의 대상은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 부정적인 면을 지닌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긍정적인 대상이므로 풍자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16 풍자물을 만들 때 풍자 대상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일 등에서 비판할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오답 넘기

⑤ 풍자는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들으로써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또 독자는 풍자물을 보고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완성한 풍자물을 보며 ⑤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우리말 톡톡 활용 문제

본책 ② | 111쪽

1 ④

1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는 ‘사모’라고 한다. 지금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양반전>에서 ‘병거지’는 조선 시대에 궁중 또는 양반집의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를 뜻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② | 114~115쪽

01 ① 02 ④ 03 ⑤ 04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다. 05 ⑤ 06 ④ 07 ① 08 부자는 양반이 신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군수가 작성한 증서의 내용을 듣고 도둑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01 ‘우화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존재(동물, 식물, 기타 사물)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담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소설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넘기

②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생기고 신분을 사고파는 등 신분제가 동요한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④ 양반의 경제적 무능력, 허례허식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다.
⑤ 빚을 갚지 못해 양반 신분을 팔게 된 무능한 양반과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려는 부자의 이야기이다.

02 아내는 양반이 책 읽기만 좋아하고 환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양반의 아내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나무란 것이다.

03 (라)는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내용으로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일 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넘기

- ① (나)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평민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를 통해 평민들은 돈이 많아도 양반들에게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부자는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려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 ③ (다)에서 양반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말하는 것을 통해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고 평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라)에는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소한 행동조차 격식에 따르는 양반들의 허세가 드러나 있다.

04 서 | 술 | 형 ㉠은 현실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양반의 태도와 비생산성을 풍자한 표현이다. 대상을 비꼬거나 조롱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양반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한다.

05 (나)에 이웃집 소를 뺏아다가 제 눈을 먼저 갈고, 백성들을 끌어다가 제 밭 김을 매게 하는 등 양반이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06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는 양반이 누리는 실질적인 이익이 나오지 않아 증서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이지 부자는 양반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양반으로서의 삶과 평민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07 (나)는 군수가 부자를 위해서 새롭게 작성한 증서로, 부자가 원했던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08 서 | 술 | 형 (가)에서 부자는 양반이 신선과 같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의 매매 증서 내용을 듣고 나서 (다)에서는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라고 말하고 있다.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양반이 ‘도둑놈’과 같이 부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3)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 쓰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118~126쪽

- 1 ④ 2 ③ 3 고마움 4 ① 5 ② 6 ③ 7 ⑤ 8 ④ 9 ④ 10 ①

1 이 글은 전학 간 슬기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한 편지글로, 속담, 관용구, 명언, 참신한 표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노랫말을 활용하여 개성 있게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은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라는 속담이 쓰인 표현이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쓰이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 말은 관용구이다.

오답 넘기

④, ⑤ ㉡은 직접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을 표현한 명언이다.

3 ㉢에서 ‘나’는 이번 봄에 다리를 다쳐 불편할 때 슬기가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4 이 글에 슬기가 차분하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넘기

② 유주가 다리를 다쳤을 때 슬기가 보살펴 준 것을 통해 드러난다.

③, ④ 슬기는 “흥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라고 하였다.

⑤ 슬기가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 경기를 하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관용구이다.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에 쓰인 “비행기 태우다”라는 표현은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6 ㉢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는 말을 관용구로 바꾸면 ‘발 벗고 나서서, 소매를 걷고 (나서서)’가 적절하다.

7 “나에게 소중한 것은 너와의 우정이야. 너와의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에는 관용구나 속담, 명언, 비유적 표현이나 참신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개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참신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하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면 독자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9 “눈앞이 캄캄하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득하다”라는 뜻의 관용구로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다.

오답 넘기

① “어떤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른다.”라는 뜻이다.

- ② “자기 잊속만 찾는 데에 몹시 열중하다.”라는 뜻이다.
 ③ “매우 높이 솟다.” 또는 “기세가 몹시 세차다.”라는 뜻이다.
 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뚝 떨어지다.”라는 뜻이다.

10 속담이나 관용구, 명언 등을 활용하면 글의 표현이 다채로워진다.

우리말 특독 활용 문제

본책 ② | 127쪽

1 ④

1 ④는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않으면 음식이 짭맛이 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보기>에 제시된 뜻을 지닌 속담이다.

오답 넘기

- ①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⑤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단원 핵심 문제

본책 ② | 129~130쪽

01 ③, ⑤ 02 ⑤ 03 비행기(를) 태우다.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 04 ④ 05 ② 06 ③ 07 ③ 08 ② 09 명언을 활용하여 유주를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과 기대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01 (가)~(나)에서 슬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에서 여름 방학 때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02 (나)를 통해 슬기가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에서는 소심하거나 심성이 여리고 착한지는 알 수 없다.
 03 서 | 술 | 형 (나)에는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관용구가 사용되었다. 이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04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는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05 ㉠은 참신한 표현이고, ㉡은 명언이다. 글을 쓸 때 참신한 표현이나 명언을 활용하면 글의 표현이 다채로워져 참신한 느낌을 주고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글쓰이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 참신한 표현이나 명언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06 (가)와 (나)에는 친구를 향한 고마움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다.

오답 넘기

- ① (나)는 (가)의 답장으로, (가)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주관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글이다. 논리적인 글은 아니다.
 ④ 슬기와 유주가 친구 사이임이 잘 드러난다.
 ⑤ 슬기와 유주의 편지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은 없다.

07 (가)는 ‘나’가 슬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뿌듯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가 다쳤을 때 슬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고마워하는 내용이다.

08 “몹시 애타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관용구는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이다. “소매를 건다”는 “어떤 일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구이다.

09 서 | 술 | 형 ㉠는 벗이 찾아와 만나는 즐거움과 관련된 명언으로, 이 명언을 활용하여 여름 방학에 유주를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과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더 읽어 보기

꼭꼭 확인 문제

본책 ② | 135~138쪽

1 ③ 2 ④ 3 ② 4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1 속담은 많은 사람의 반복적인 경험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땡 대신 닭”이라는 속담의 단어 배열 순서를 바꿔 “닭 대신 땡”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오답 넘기

- ② (7)에 유사한 속담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⑤ (9)에 속담의 구성 성분을 다른 말로 교체한 예가 제시되어 있다.
- 3 속담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속담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사이버 보안도 맞들면 낫다”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에서 구성 성분을 바꾼 것이고, “국내 기업 수출, 주력 산업 외에도 솟아날 구멍 있다”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변형한 것이다.

대단원 종합 문제

본책 ㉠ | 139~14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05 ⑤ 06 술을 끊은 친구의 마음은 독하지만, 그 독한 마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으므로 아름답다고 역설을 써서 표현하였다. 07 ① 08 ② 09 ② 10 ③ 11 ⑤ 12 작가는 도둑놈이라는 단어를 통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13 ⑤ 14 ③ 15 ⑤ 16 ㉠: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잖아. ㉡: 새 발의 피야. 17 ① 18 ④ 19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속담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할 수 있다. / 속담을 활용하여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 01 (가)에서는 특별한 심상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답 넘기

- ① (가)의 화자는 “잇었노라”라고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② (가)는 먼 훗날 미래의 어느 때 ‘당신’이 화자를 찾아온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 등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나)는 은행나무 열매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복어의 독, 친구의 독한 마음이 모두 소중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지식+

심상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물의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말한다. 심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시각적 심상	모양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예) 영산홍은 빨강 거뿔이 / 보글보글 일고 있잖아
청각적 심상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예)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미각적 심상	맛을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예)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후각적 심상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예)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촉각적 심상	촉감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 예)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
공감각적 심상	원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여 둘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심상 예)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시각 → 촉각 → 시각의 촉각화

- 02 (가)는 3음보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지만, (나)는 3음보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 03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으로 떠나간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그리움의 감정을 “잇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04 <보기>는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로, 이 시에서 화자는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가)와 <보기>의 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표현하려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이다.
- 05 복어의 독은 다른 동물이 복어알을 먹지 못하게 복어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먹이를 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 06 서 | 술 | 형 ‘독한 마음’과 ‘아름답다’는 서로 모순이 되는 표현으로 역설이 사용된 경우이다. 친구가 술을 끊은 것은 독한 마음이지만 그 이유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에 아름답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에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완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7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들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풍자 소설이다.

- 08 관찰사는 환자를 갇지 않는 양반을 벌하려 하고 있을 뿐 양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자는 평민이라서 천한 대접을 받고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는 처지에 불만을 품고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갇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한 것이다.

오답 넘기

- ㉠ (가)에서 양반의 아내가 “양반!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과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양반은 평소 책 읽기만 좋아할 뿐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환자를 갇지 못해 곤경에 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 이를 통해 양반이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09 (나)에서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서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돈으로 신분을 사고팔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신분 체제가 동요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드러난다.

- 10 (라)에서 양반이 벼슬을 통해 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반이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1 이 글(A)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횡포를 풍자를 써서 드러내고 있고, <보기>(B)는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풍자를 써서 비판하고 있다.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조리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넘기

- ① 양반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는데도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② “발목 뽕까 봐”, “피부병 걸릴까 봐”와 같이 비교아서 대상을 풍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③ ‘달리기’ 대신 ‘조깅’이라는 말을 쓰고, ‘찬물’ 대신 ‘냉수’라는 말을 쓰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④ A의 작가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으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B의 작가는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12 **서|술|형** 양반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도둑놈”이라는 말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횡포를 저지르는 부정적인 존재임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도둑놈”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서술하였다.	
주어진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13 이 편지를 쓴 사람인 유주는 슬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

오답 넘기

- ① 이 편지의 끝부분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유주임을 알 수 있다.
 ②, ④ 유주는 슬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전하고, 자신이 이번 여름 방학에 슬기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③ 참신한 표현이나 관용구, 속담, 명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였다.

- 14 슬기는 착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이지만, 슬기가 유주에게 칭찬을 잘해 주었다는 언급은 없다.

- 15 ㉠ “한 시간의 대화가 오십 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명언을 활용하여 슬기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넘기

- ① “참외”는 ‘참 외롭다’는 것을 참신하게 표현한 것이다.
 ②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는 슬기가 없는 허전함을 드러낸 참신한 표현이다.
 ③ “비행기를 태우다”는 관용구이다.
 ④ “너는 나의 그림자처럼”은 비유를 써서 표현한 것이다.

- 16 **서|술|형** ㉠ ‘적극적으로 나서다’는 의미의 관용구에는 “발 벗고 나서다”나 “소매를 걷다” 등이 있다. ㉡ ‘아주 하찮은 일이다’는 의미의 속담에는 “새 발의 피”, “바닷속의 좁쌀알 같다” 등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적절한 관용구를 써서 대화체로 표현하였다.	
㉡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적절한 속담을 써서 대화체로 표현하였다.	

- 17 (가)의 내용을 보면 속담은 이미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잘 다듬어진, 정제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속담을 글쓰기에 활용하면 상황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마)는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말로 속담의 구성 성분을 교체한 예를 보여 준다. 속담을 변형하여 이용함으로써 기사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속담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은 아니다.

19 **서술형** ㉠에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34년이 긴 세월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표현을 풍부하게 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속담의 사용 효과를 한 문장으로 적절히 서술하였다.	

서술형·논술형 문제

본책 ㉠ 144~145쪽

1 • 은정: 역설이 쓰인 표현이야.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화자는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어.) • 지수: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가 있어. 2 무위도식하며 유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을 비판했어요. 양반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반이라면 양반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나요? 3 • ㉠: 비행기 태우려고 ㉡: 개밥에 도토리 • 표현 효과: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김 침지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날이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돈도 많이 받는 등 운수 좋은 날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김 침지의 비극적인 하루를 ‘운수 좋은 날’이라고 반어를 써서 표현함으로써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 “구린내가 향기롭다”는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다. 구린내는 고약한 냄새로 사람들이 맡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구린내가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냄새라고 여겨 향기롭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역설을 써서 구린내의 가치

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역설이 쓰인 또 다른 시구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역설’이 쓰였음을 밝히고 시구의 의미를 적절히 풀이하였다.	
역설이 쓰인 시구 세 개를 정확히 찾아 썼다.	

2 첫 번째 문단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양반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두 번째 문단에는 권력을 세습하고 무위도식하며 향락에 젖어 있는 양반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 문단에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횡포를 일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증서에 담긴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 두 가지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덧붙였다.	

3 ㉠에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추어올려 주다.”라는 뜻의 관용구 “비행기(를) 태우다”가 들어갈 수 있다. ㉡에는 “개밥에 도토리”라는 속담을 넣어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관용구나 속담 등을 사용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에 알맞은 관용구를 썼다.	
㉡에 알맞은 속담을 썼다.	
관용구나 속담을 사용하여 글을 쓸 때의 효과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유사 정답

- 글의 표현이 다채로워진다.
- 읽는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글을 쓸 수 있다.

4 김 침지가 많은 돈을 번 날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날로 가장 운수가 좋지 않은 날이었다. 이를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한 것은 김 침지의 운수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김 침지의 하루가 운수 좋은 날이 아님을 밝히고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제목에 반어가 쓰였음을 밝히고 반어의 표현 효과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어휘 실력 쌓기

본책 ② | 146쪽

1 (1) ③ (2) ② (3) ① (4) ⑤ (5) ④ 2 (1) ① (2) ⑥ (3) ② (4) ④ (5) ⑤ (6) ③

모의 평가

중간 모의 평가 1회

본책 ① | 142~149쪽

01 ④ 02 ③ 03 ② 04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라서 가지 있다. 소비자에게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④ 11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라고 말하자 '나'는 점순이가 생색을 내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한 것이다. 12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글쓰이가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글쓰이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2 ⑤ 23 ④ 24 책임감을 갖고 개를 기르자. 25 ② 26 ④ 27 ⑤ 28 ④ 29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30 ①

01 (가)의 “나는 찬밥처럼”,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느”, (나)의 “지 몸 살 사람”,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 유”를 통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가), (나)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일상적인 소재에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 (가)는 깨달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 또한 딸기가 자신의 가치를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전하는 내용은 아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④ 말하는 이가 시 표면에 등장하여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나)에서는 ‘선상님들’이라고 부르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지만,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2 (가)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로, 엄마를 기다리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가)의 1연에서는 유년 시절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의 외로움과 무서움, 쓸쓸함의 정서가 드러나고, 2연에서는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화자의 슬픈 정서가 드러난다.

04 서 | 술 | 형 (나)의 화자는 딸기이다. 화자는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 손과 농부 손 고루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은 자연의 도움을 뜻하고 농부는 사람의 도움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가치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제값을 주고 자신(딸기)을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자신이 가치 있는 이유를 표준어로 적절히 서술하였다.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표준어로 적절히 서술하였다.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05 (나)의 화자는 사람이 아니라 딸기이다. 화자가 딸기라고 해서 교훈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 보기

- ① 교훈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
- ② 시를 감상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
↳ 딸기가 화자이므로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다.
- ③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
↳ 시의 중심 소재인 딸기가 직접 말을 건네고 사투리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므로 내용이 실감 나게 전달된다.
- ④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
↳ 농부가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딸기가 제값을 주고 자신을 사 달라고 말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⑤ 화자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
↳ 딸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6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악하고 적극적인 성격임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수룩하고 둔한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선지 보기

- ① 당시 농촌의 문제점을 주제로 하고 있다. ✕
↳ 이 글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현재-과거-현재'로 시간을 거슬러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③ 계층 차이 때문에 생긴 인물 간의 갈등을 주로 보여 준다. ✕
↳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감을 담아 준 감자를 '나'가 거절하면서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생긴 것이지 계층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은 아니다.

④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들의 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한 뒤, 닭싸움을 붙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점순이와 '나'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7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나'로, 점순이의 행동에 담긴 의도와 속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은 드러내지 않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닭싸움을 붙이는 것이므로 닭싸움을 좋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지 보기

- ① '나'를 향한 점순이의 호감 ○
↳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나'를 향한 호감을 표현했다.
- ②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의 행동 ○
↳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이후, 점순이는 '나'의 집 닭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 ③ 점순이가 닭싸움을 좋아하는 이유 ✕
- ④ 점순이와 '나'의 집의 경제적 차이 ○
↳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다. 또한 '나'의 집은 점순네에게 집터를 빌려 집을 지었다.
- ⑤ 점순이의 호의에 대한 '나'의 태도 ○
↳ '나'는 점순이의 호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다.

09 '나'가 감자를 거절하자 점순이는 '나'에게 복수하고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의 집 닭을 괴롭히고, 자기네 닭과 닭싸움을 붙인다. 즉, 닭싸움은 점순이와 '나'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마)~(바)에서 '나'가 이성을 잃고 점순네 닭을 죽이고 나서 걱정이 되어 울음을 터뜨리자 점순이가 '나'를 달래 주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닭싸움이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의 서술자는 ‘나’이다.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 채지 못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을 준다.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게 되면 점순이의 심정과 의도가 잘 드러나게 되므로 소설의 분위기도 바뀌게 된다.

선지 보기

- 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 점순이가 서술자가 되면 점순이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
- ② ‘나’와 점순이의 속마음을 모두 짐작하게 된다. ✕
↳ 점순이의 속마음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만, ‘나’의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아 짐작하며 읽어야 한다.
- ③ ‘나’와 점순이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 점순이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나’의 심리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④ 점순이의 의도가 다 드러나 순수하고 순박한 느낌이 탈해진다. ○
- ⑤ ‘나’의 행동과 심리가 잘 드러나 소설의 해학성이 더욱 높아진다. ✕
↳ ‘나’의 행동과 심리는 (나)처럼 ‘나’가 서술자일 때 잘 드러나며, 눈치가 없고 둔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적극적인 성격의 점순이로 바뀌면 (나)보다는 해학적인 분위기가 탈해질 것이다.

- 11 서 | 술 | 형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말은 ‘나’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한다. 이는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고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점순네와 ‘나’의 집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나’가 감자를 받지 않은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두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2 서 | 술 | 형 (바)의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는 점순이와 ‘나’의 화해와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이 중에서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는 후각적인 심상이 나타난 표현으로, 점순이와 ‘나’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절을 (바)에서 정확히 찾았다.	
5어절로 썼다.	

- 13 ‘해학적’이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 또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 소설은 눈치 없고 어수룩한 ‘나’의 말과 행동, 상황에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은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는 말로 갈등을 자아내는 부분이지 해학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요소는 아니다.

선지 보기

- ① ㉠ ○
↳ 점순이의 의도를 모르고 눈치가 없는 ‘나’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 ② ㉡ ○
↳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한다.
- ③ ㉢ ✕
- ④ ㉣ ○
↳ 상황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다.
- ⑤ ㉤ ○
↳ ‘나’가 점순이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 14 이 시의 화자는 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실제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반어로, 이 시에는 반어가 쓰이지 않았다.

선지 보기

- ① 자신을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 화자는 ‘나’로, 자신을 행인(손님)을 기다리는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②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 주고 있다. ○
↳ ‘나’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
- ③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 높임말을 사용하여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
- ④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나’는 당신의 무관심한 태도에도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자신의 감정을 실제와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 15 ㉠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는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심한 태도를 보여 주는 구절로 ‘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 16 ‘나’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고난

과 역경이 있더라도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17 글쓴이가 중학교 때 도서관 활동을 하며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았으며 이때 읽은 책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없다.

선지 보기

- ① 구체적인 독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 활동 시간에 한 자신의 독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 ③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 자신의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다)에서 책을 읽고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졌다고 하였다. 책 읽기를 보약을 먹은 것에 빗대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
↳ 박지원의 소설과 무협지를 대조하여 고전의 가치를 부각하였다.

- 18 (마), (바)에는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글쓴이는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책 덕분에 자신이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 보기

- ① 준수: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알 수 있어. ○
↳ (바)의 네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주현: 책을 읽으면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
- ③ 지민: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 ○
↳ (마)~(바)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자신의 일생을 바꾸었으며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태형: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
↳ (바)의 네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예진: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
↳ (바)의 세 번째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 19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 보기

- ① 문장이 품위 있고 아름답다. ○
↳ (다)에서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이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 ②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온다. ○
↳ (다)에서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박지원 소설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고 하였다.
- ③ 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
↳ (나)에서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 ④ 짧은 시간에도 많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⑤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
↳ (나)에서 박지원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20 글쓴이는 (라)에서 자신이 고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말하고 있다. 그에게 고전은 재미있는 것, 피와 살이 될 정도로 유익한 것, 뿌듯함을 주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라)에서 고전 읽기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21 서 | 술 | 형 (마)에서 글쓴이는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박지원의 소설이 자신의 진로를 소설가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책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을 잘 파악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2 (다)에는 훈장님의 책 읽기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다)를 읽고, 읽기를 통해 앞 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 내용은 사회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를 읽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

선지 보기

- ① (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 (가)는 녹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를 읽고 녹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가):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
↳ (가)에 제시된, 녹차가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③ (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④ (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

↳ (나)는 반려견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⑤ (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23 (가)에서는 독자에 들어 있는 카테킨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24 서 | 술 | 형 (나)에서는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개를 기를 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책임감'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글쓰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하)자.'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5 (다)에서 훈장님은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②와 같이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6 발표할 때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조절하고 언어적 표현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발표의 목적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27 문화재가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환수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선지 보기

① 외교 교섭을 통해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다. ○
↳ (라)에서 정부 간 외교 교섭을 통해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우리나라 문화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반출되기도 한다. ○
↳ (다)에 나타난 외교에서의 선물이 이에 해당한다.

③ 우리 문화재가 절도, 약탈 등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되기도 한다. ○
↳ (다)에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로 약탈, 절도 등이 있다고 하였다.

④ 기증과 대여, 구입 등의 방식으로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 ○

↳ (라)에서 문화재 환수 방법에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이 있다고 하였다.

⑤ 문화재가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 가능성이 없다. ✕

28 (마)는 발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선지 보기

① 청중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군. ○

↳ "여러분"이라고 청중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켰다.

② 정중하게 인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군. ○

↳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③ 발표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점을 언급하고 있군. ○

↳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④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덧붙이고 있군. ✕

⑤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군. ○

↳ 힘찬 목소리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29 서 | 술 | 형 다양한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다음에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할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발표할 내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0 ㉠ 뒤에 이어지는 발표 내용으로 볼 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 모의 평가 2회

본책 1 | 150~158쪽

01 ② 02 ④ 03 A: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B: 화자에게 유년 시절은 윗목처럼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04 ③ 05 ② 06 ③ 07 ② 08 ③ 09 ① 10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이다. / '나'는 둔하고 눈치가 없는 인물이다. 11 ⑤ 12 ③ 13 ⑤ 14 ⑤ 15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불빛으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6 다른 대상에게 시련을 주는 소재이다. 17 ⑤ 18 ① 19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 보약처럼 책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20 ⑤ 21 ③ 22 ④ 23 ⑤ 24 ③ 25 개를 입양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26 ③ 27 ③ 28 ⑤ 29 ② 30 • 준언어적 표현: ①, ③, ⑤ • 비언어적 표현: ②, ④, ⑥

- 01 (가)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에서 ‘찬밥’은 아무도 돌봐 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는 장면은 떠올릴 수 있지만 찬밥을 먹는 장면은 떠올릴 수 없다.

선지 보기

- ①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 ○
↳ 1연에서 유년 시절에 화자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엄마를 혼자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② 혼자 찬밥을 먹으며 숙제를 하는 모습 ✕
- ③ 빈방에서 혼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 ○
↳ 1연에서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이라는 시구를 통해 외로움과 무서움에 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고요히 빗소리만 들리는 방에서 무서워하는 모습 ○
↳ 1연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이 비가 내리는 밤이다. 고요히 빗소리만 들리는 밤에 혼자 빈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과 “어둡고 무서워”라고 표현한 부분을 통해 고요히 빗소리만 들리는 방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⑤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 ○
↳ 2연에서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을 통해 성인이 된 ‘나’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 02 (가)의 2연에서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을 통해 어른이 된 화자가 아직도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년 시절을 ‘윗목’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에서 유년 시절을 차갑고 시린 느낌

을 주는 시절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흥가분함을 느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 보기

- ① 태연: 1연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가 느껴져. ○
↳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등을 통해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 무서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② 서준: 1연은 과거의 상황을, 2연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
↳ 1연에는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의 유년 시절(과거)이 제시되어 있고, 2연에는 현재 이러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성현: 1연의 시간적 배경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
↳ 이 시의 1연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④ 해인: 2연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흥가분함을 느끼고 있어. ✕
- ⑤ 세호: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하며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 ○
↳ “안 오시네”, “안 들리네”와 같은 부정적인 시어를 반복하여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03 서 | 술 | 형 <보기>에서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꽃’을 ‘거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은유법이 사용된 시행을 정확히 찾았다.	
화자가 이와 같이 표현한 까닭을 적절히 설명하였다.	

- 04 (나)의 제목과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화자는 ‘딸기’이다. 시인은 ‘딸기’를 화자로 내세워 딸기의 관점에서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며 ‘농작물의 가치’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05 ㉠은 엄마의 지친 발소리를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하여 지치고 고된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 엄마가 저야 할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

↳ '열무 삼십 단'은 엄마가 저야 할 삶의 무게이면서 엄마의 고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지친 모습을 비유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
- ③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
↳ '빗소리'는 어두운 밤에 고요히 내려 화자를 더욱 외롭고 무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④ ㉢: 먼 거리를 이동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오십 리 길'은 딸기가 산지에서 낫선 거리까지 이동한 거리이다.
- ⑤ ㉣: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
↳ 자신이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만들어진 귀한 몸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다.

06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이다.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달되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 보기

- ① '현재-과거-현재'의 순서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현재의 이야기이고 (나)~(라)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마)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
↳ 이 소설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이야기 속에 등장한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 ④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수탉', '호드기', '동백꽃'과 같은 토속적인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소재의 사용은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비속어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 '계집애', '모가지' 등의 비속어와 '면두', '가차이' 등과 같은 사투리를 사용하였다.

07 (나)에서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적만척'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와 '나'가 어릴 때부터 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지 보기

- ① 점순이는 '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
↳ (나)에서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나, (바)의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② 점순이와 '나'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
- ③ '나'는 점순이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감자를 거절했다. ○
↳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하며 그 말에 마음이 상해 감자를 거절한다.
- ④ 점순이가 '나'의 씨암탉을 쥐어박는 것은 '나'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

↳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다음 날 저녁부터 '나'의 씨암탉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나'의 닭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점순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점순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
↳ (마)의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라는 부분에서 '나'가 전에는 점순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순이와 갈등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08 <보기>에서는 [A]의 '나'가 '갑돌이'로, '점순이'가 '나'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기>는 점순이를 서술자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점순이가 서술자가 되면 점순이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서술 부분을 대화 장면으로 바꿔야겠어. ✕
↳ [A]와 <보기> 둘 다 대화가 없이 서술로만 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위치를 작품 밖으로 옮겨야겠어. ✕
↳ <보기>의 서술자는 소설 안에 있는 '나(점순이)'이다.
- ③ 점순이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겠어. ○
- ④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긴장감을 높여야겠어. ✕
↳ <보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 [A]의 '나'를 '갑돌이'로 표현한 것이다.
- ⑤ [A]에 등장하는 '나'의 억울한 마음을 강조해야겠어. ✕
↳ <보기>에서는 점순이가 서술자이므로 [A]에 등장하는 '나(갑돌이)'의 마음을 제대로 서술하기 어렵다.

09 (바)에서 점순이는 '나'가 자신의 닭을 때려죽인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시켜 나가면서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점순이가 당돌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선지 보기

- ① 당돌하고 적극적이다. ○
- ② 남의 처지를 잘 배려한다. ✕
↳ 점순이가 '나'가 닭을 죽인 행동을 숨겨 주는 것은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다.
- ③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다. ✕
↳ 점순이는 다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어깨를 짊고 쓰러진다. 이런 말과 행동으로 볼 때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

↳ '나'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

↳ 점순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다.

- 10 서 | 술 | 형** (나)에서 '나'는 점순이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의를 무시해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또한 (바)에서 '나'는 점순이의 말의 의도를 모르고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밀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1** '동백꽃'은 이 소설의 제목이면서 중요한 소재이다. 먼저 언덕에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은 소설의 배경이 '봄'임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갈등을 겪던 점순이와 '나'가 동백꽃 위로 쓰러지는 장면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음보'란 시에서 끊어 읽는 단위로 우리나라의 전통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조에서는 "더우면 / 꽃 피고 / 추우면 / 잎 지거늘"과 같이 4음보가 반복되고, 김소월의 <민 후일>은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가 반복되는데, 같은 음보가 반복되면 전통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음보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선지 보기

- ① 비유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비유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습니다' 형태의 경어체를 주로 사용하여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규칙적인 음보를 반복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 ④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
↳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수미상관'이라 한다.

- ⑤ 사물의 특성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나룻배는 행인이 강을 건너게 해 주는 수단으로, 행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물이다.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당신을 향한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 수미상관

1. 의미: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표현 방법

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2. 효과

-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반복하면서 형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 시에 여운을 남겨 준다.

- 13** (가)에서 '나'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당신'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까 그려."에서 '당신'은 이별에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이 만화에서는 만화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만화의 특징을 살려 소설로 옮기면 서술자를 이야기 안에 있는 '나'로 설정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지 보기

- ① 민수: 이 만화에서 말하는 이는 '나'야. ○
↳ 청각 장애인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진호: 운전자의 표정을 통해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어. ○
↳ 만화는 인물의 표정으로 심리를 표현할 수 있다. 운전자의 찌푸린 미간 등을 통해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 ③ 주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배려하는 인물인 것 같아. ○
↳ 자신이 더 놀랐음에도 운전자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인희: 인물의 눈동자를 생략함으로써 놀란 심리를 표현하고 있어. ○
↳ 이 만화에서는 눈동자를 생략하는 방법으로 놀란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강민: 이 만화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소설로 바꾸면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는 존재로 설정해야 해. ✕

15 서 | 술 | 형 (나)의 출처를 통해 ‘나’가 청각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나’가 운전자의 경적 소리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불빛으로 자동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내게 있어 ‘낮’은 ‘위험’, ‘밤’은 ‘안전’”이라고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만화 속 인물이 청각 장애인임을 밝혔다.	
만화 속 인물이 밤이 안전하다고 말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16 서 | 술 | 형 〈보기〉에서 ‘눈서리’는 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외부의 힘으로 시련, 역경, 고난을 상징한다. ㉠의 ‘눈비’ 역시 ‘나’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게 하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시련’과 관련지어 두 소재의 공통점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17 이 글은 중학교 3학년 때의 독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앞으로의 독서 계획은 나오지 않는다.

선지 보기

- ㉠ 앞으로 자신의 독서 계획을 밝히고 있다. ✕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라)에서 글쓴이는 책을 읽고 정신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것을 보약을 먹은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이를 통해 읽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글쓴이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 이 글은 글쓴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박지원의 소설을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의 가치를 깨우쳐 주고,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작품을 예로 들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 박지원의 〈허생전〉, 〈호질〉, 〈양반전〉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읽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18 (라)에서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에 대해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문장이 짜임새가 있고 품격이 느껴진다. ○
- ②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다. ✕
↳ (다)에서 무협지는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만 기억에 남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에 대해 자주만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 ③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를 사용하였다. ✕
↳ (나)를 통해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주인공이 세상을 한바탕 뒤집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다. ✕
↳ (나)에서 주인공이 한바탕 세상을 흔들어 놓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무협지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한두 번만 읽어도 소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였다. ✕
↳ 박지원 소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 서 | 술 | 형 ‘일생의 보약’은 독서의 가치를 비유한 말이다. (라)에서 책을 읽으면 보약을 먹은 것처럼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고 있다. 보약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책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책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일생의 보약’의 의미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0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 느껴지는 경험”이라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고전을 읽고 옛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1 (가)는 녹차의 효용성과 녹차를 마실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읽은 독자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나)는 책임감을 갖고 개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는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22 (가)의 첫 문장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가라앉히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에서 ‘또한’, ‘효과가’라는 표현

을 통해 이 앞에도 녹차의 카테킨 성분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바로 앞에는 카테킨 성분이 감기를 예방하게 해 준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3**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녹차의 효용을 이야기하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여드름이 많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녹차를 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약을 복용 중이신 분 ○
↳ (가)의 두 번째 문단 2~3번째 문장에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있다.
- ②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 ○
↳ (가)의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에 녹차가 이뇨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사람은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밤에 잠을 잘 자지 못 하시는 분 ○
↳ (가)의 두 번째 문단 4~5번째 문장에 녹차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어 잠자기 전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있다.
- ④ 빈혈이 있어 자주 어지럼을 느끼시는 분 ○
↳ (가)의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빈혈이 있는 사람은 녹차의 카페인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므로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있다.
- ⑤ 여드름이 많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 ✕

- 24** (나)에서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개의 입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말이다. 입양을 자제했으면 하는 사람의 유형은 (나)에 나열되어 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은 개를 입양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

선지 보기

- ③ 마음의 상처가 많은 ✕
↳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뿐 마음의 상처가 많다고 해서 개를 입양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 ⑥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한 ○
↳ (나)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 ⑩ 개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 ○
↳ (나)의 마지막 문장에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입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개를 기를 여건이 되는 사람만 개를 입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④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없는 ○

↳ (나)의 끝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을 때 입양하라고 말하고 있다.

- ⑥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

- 25** 서 | 술 | 형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라는 말을 통해 개를 입양할 때에는 가족을 한 명 더 늘리는 것과 같이 신중한 태도로 해야 하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①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입양’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6**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없다.

선지 보기

- ① 공식적인 자리이므로 높임말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
↳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도 공식적인 말하기라면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발표의 발표자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중간 질문을 하여 청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
↳ (가)에서 “이 그림을 아십니까?”, (나)에서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청중들의 신뢰를 얻는다. ✕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발표 내용에 객관성을 확보한다. ○
↳ (가)의 <몽유도원도>, (다)에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은 것, (라)의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다. ○
↳ (가)에서 <몽유도원도> 사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 (다)에서 ‘문화재 환수 방법’ 가운데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③은 환수 방법 중 ‘기증받기’와 관련된 자료로 (가)~(마)에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①은 (가), ②는 (나), ④는 (라), ⑤는 (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 28** 발표를 듣고 할 수 있는 질문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표 주제와 관련이 적은 것, 발표 내용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 등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라)에 제시된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전은 문화재의 현지 활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⑤와 같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선지 보기

- ①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해외로 나가게 되었나요? ✕
↳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일본은 중요 문화재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나요? ✕
↳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이다.
- ③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이다.
- ④ 안전의 <몽유도원도>는 지금 어디에 전시되어 있나요? ✕
↳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었나요? ○

29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표를 끝맺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발표의 목적이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촉구'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이라는 의미이다.

30 **서|술|형** '준언어적 표현'은 억양, 어조, 강약, 장단 등으로 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를 말한다. 반면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이나 손짓, 몸짓 등과 같이 언어로 전달되지 않지만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준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찾았다.	
비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찾았다.	

기말 모의 평가 1회

본책 2 | 148~155쪽

01 ⑤ 02 ③ 03 중심 내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어색하다. 이를 자연스럽게 고치기 위해서는 "4층에는 제가~매장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04 ④ 05 선생님은 학생이 늦은 것을 지적한 것인데, 학생은 시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⑤ 08 ⑤ 09 진심을 담은 고백을 거절당해서 마음이 복잡하구나.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③ 15 • 전달하려는 의미: 잊을 수 없다. • 표현 방법: 반어 • 표현 방법 설명: 원래 표현하려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여 속마음을 인상 깊게 드러내는 방법이다. 16 ④ 17 은행나무 열매, 밤들, 복어알 18 ③ 19 ③ 20 ④ 21 양반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이 도둑놈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22 ① 23 ② 24 ④ 25 ② 26 ㉠: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치지 않듯이 ㉡: 비행기 태우려고 ㉢: "한 시간의 대화가 오십 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 27 ③ 28 ② 29 슬기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30 ①

01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은 '상황 맥락'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이다.

02 ㉡의 앞부분에는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두 문장은 서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인 '한편'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 보기

- ① ㉠에 '이것은'이라는 지시 표현을 넣어 앞뒤 문장을 간결하고 긴밀하게 연결한다. ○
↳ 앞의 문장을 반복하지 않고, '이것은'이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뒤 문장의 주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
- ② 앞뒤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에 '하지만'이라는 접속 표현을 넣는다. ○
↳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므로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에 '한편'이라는 접속

표현을 넣는다. ✕

- ④ 뒤의 문장이 앞 문장에 추가되는 내용이므로 ㉠에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넣는다. ○

↳ 앞 문장과 뒤 문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열되고 있다. 이럴 때에는 ‘또한’이나 ‘그리고’와 같은 접속 표현을 넣는 것이 좋다.

- ⑤ 앞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므로 ㉠을 ‘이’라는 지시 표현으로 바꾸어 준다. ○

↳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앞 문장 전체를 지시하는 ‘이’를 넣어 주면 앞뒤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 03 서 | 술 | 형** 제시된 글은 영화를 보러 가서 승강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함께 승강기를 탄 아저씨가 방귀를 뀌는 일이다. 그런데 “4층에는 제가~매장이 있습니다.”는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다. 이처럼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추가되면 글은 통일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글이 어색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삭제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며 삭제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 04** ‘추석에는 큰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이산가족은 명절에 임진각에 가곤 한다’, ‘임진각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다’ 등과 같은 우리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학생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 05 서 | 술 | 형** 만화에서 학생은 학교에 지각을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선생님은 학생이 늦은 것을 꾸짖는 의도로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은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해해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선생님이 말한 의도와 학생이 이해한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06** 제시된 대화는 아빠가 민호에게 늘 관심이 있었으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

이다. 이에 아빠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는다. 이 담화는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07** 대화에서 찬우는 “은미야, 무슨 일 있어?”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대화 시작 전에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 질문으로, 은미가 한 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 08**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 주는 것을 ‘소극적 들어 주기’라고 한다. 여기에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나, 맞장구를 치며 반응을 해 주는 방법 등이 있다. ㉠과 ㉡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다.

- 09 서 | 술 | 형** 선재는 유정에게 진심을 담아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해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요약하여 다시 한 번 말해 주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공감을 표현하였다.	
대화체로 서술하였다.	

- 10** (가)~(다)는 모두 효과적인 듣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나)는 말하는 사람과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것, (다)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공유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11** 예나가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⑤와 같이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에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상대방의 이야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자세, (나)에서 상대방과 시선 맞추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예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
↳ (가)의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② 대화할 때는 광희를 바라보아야지. ○
↳ (나)에 제시된 상대방과 시선 맞추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③ 광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 있지. ○
↳ (가)의 내용을 통해 이와 같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
↳ (다)에서 대화는 일반적으로 의사를 교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방과 어떤 문제에 관해 내용을 공유하고, 공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 ⑤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시선을 맞추며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어야지. ✕

12 (가)는 1~3연에서 ‘…면(상황을 가정), …있었노라(화자의 반응)’와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나)는 각 대상의 특징을 먼저 제시하고, 그 대상에서 발견한 가치를 나중에 제시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비슷한 구조의 연을 반복하고 있다. ○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없다.
- ③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먼 훗날’, ‘…면’이라고 표현하며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나)에서는 독백체를 사용하였다.
- ⑤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 (나)에는 후각(구린내가 난다, 구린내가 향기롭다), 촉각(따가워진다), 시각(뱀들이 여물면서) 등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에서는 특별한 감각적 심상을 느낄 수 없다.

13 (나)의 화자는 ‘은행나무, 밤송이, 복어’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과, ‘친구’를 보고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가)의 화자는 다가올 이별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을 한 상황이다.
-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이 관찰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잊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 ‘당신’을 잊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 (나)의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의 화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14 (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시이다. 일반적으로 운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선지 보기

- ㉠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다. ○
↳ “당신이”, “있었노라”라는 시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
- ㉡ 의성어나 의태어가 반복된다. ✕
↳ 이 시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나오지 않는다.
- ㉢ 시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
↳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거나 같게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 한다.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 ㉣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것이 반복된다. ○
↳ 시에서 끊어 읽는 마디를 ‘음보’라 한다. 이 시는 각 행을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다.

15 시 | 술 | 형 화자는 ㉠ “있었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화자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라고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전달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였다.	
표현 방법이 ‘반어’임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반어’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였다.	

16 ㉠에서 ‘구린내’는 “퐁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의미한다. 그리고 ‘향기롭다’는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두 단어는 같이 쓰기에 어색한 단어인데, 이들을 함께 쓰면서 고약한 냄새를 통해 열매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린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 한다. ㉣에는 역설이 사용되지 않

고, ‘고양이의 털’을 ‘꽃가루’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가 사용되었다.

선지 보기

- 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 “고와서 서러워라”에 역설이 쓰였다.
- ②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 ‘괴롭다’와 ‘행복하다’라는 모순된 표현이 함께 쓰였다.
- ③ 아아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시다. ○
↳ ‘가다’와 ‘보내지 않았다’라는 모순된 표현이 함께 쓰였다.
- ④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
- ⑤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 “찬란한 슬픔”에 역설이 쓰였다.

17 서 | 술 | 형 ‘자식’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대상이다. 각 연의 ‘은행나무 열매’, ‘밤톨’, ‘복어알’은 ‘자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모두 보호받는 대상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자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대상을 모두 찾아 바르게 썼다.	

18 이 소설은 ‘양반의 무능과 횡포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양반을 무능력하다고 비판하는 아내의 말이나, 증서에 기록된 양반의 행태에 대해 ‘도둑놈’이라 표현하는 부자의 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 역순행적 구성이란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지 않는 구성을 말한다. 이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②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다.
- ③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 ④ 비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 이 소설은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⑤ 영웅적인 인물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
↳ 이 소설에 영웅적인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19 (가)에서 아내는 책 읽기만 좋아할 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남편인 양반에게 “평생 당신은~한 편어 치도 안 되는구려.”라고 말하며 비판하고 있다. 아내는 현실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양반의 태도와 비생산성을 풍자하는 역할을 한다.

선지 보기

- ① 관찰사: 권위 의식이 있으며, 재물에 욕심이 많다. ✕
↳ 관찰사는 환자를 감지 않은 양반을 옥에 가두려는 인물이다. 권위 의식이 있는지, 재물에 욕심이 많은지는 알기 어렵다.
- ② 양반: 지조 있는 선비로, 현실 극복 의지가 강하다. ✕
↳ 양반은 책 읽기만 좋아할 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인물로 풍자의 대상이다.
- ③ 양반의 아내: 현실적인 인물로,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한다. ○
- ④ 부자: 순종적인 인물로, 신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걱정한다. ✕
↳ 부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 했던 인물로, 평민인 자신의 신분 불안이 있는 인물이다.
- ⑤ 군수: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인물로, 부자의 신분 상승을 지지한다. ✕
↳ 군수가 백성을 생각한다고 볼 내용은 없으며, 부자의 신분 상승을 지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증서 때문에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 (나)의 부자의 말을 통해 볼 때, 평민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가난한 양반 앞에서 설설 기고 엎드려야 하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신분은 타고난 것으로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
↳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 ② 신분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없었다. ✕
↳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있으며, 양반이 존귀한 대우를 받는 사회였다.
- ③ 양반들은 국가의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었다. ✕
↳ 소설 속 양반이 환자를 감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볼 때 양반이라도 국가의 곡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돈이 많은 평민보다 가난한 양반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았다. ○
- ⑤ 학문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고, 농민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다. ✕
↳ (가)에서 양반의 아내가 책 읽기가 환자를 감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에 대한 비판일 뿐 학문 자체를 비천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농민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졌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21 서 | 술 | 형 (마)에서 부자가 말하는 ‘도둑놈’은 양반을 가리킨다. 부자는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행실을 보고,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도둑놈이나 할 잘 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마)에서 ‘도둑놈’이라는 단어를 찾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포함하여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2 이 소설에는 두 개의 증서가 등장한다. 첫 번째 증서인 [A]는 양반이 지켜야 할 책임을 적은 것으로 겉치레를 중시하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한 것이다. 두 번째 증서인 [B]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적은 것으로 백성들에게 횡포를 저지르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선지 보기

- [A]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 [B]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
- [A]는 양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B]는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다. ✕
↳ [A], [B] 모두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A]는 현실적인 양반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B]는 이상적인 양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
↳ [A], [B]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A]는 양반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하였고, [B]는 양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였다. ✕
↳ [A]가 양반이 해야 할 일을 나열한 것은 맞으나, [B]가 양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니다.
- [A]는 양반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B]는 양반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이다. ✕
↳ [A], [B]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23 ‘수모’는 “모욕을 받음.”이라는 뜻의 말이다. 이는 ‘창피 당함.’이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 24 편지는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공적인 편지는 격식을 갖추어 높임말을 써야 하지만, 친교를 위한 사적 편지는 친근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시된 편지는 친구들끼리 주고받

는 사적인 편지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선지 보기

- 편지를 받는 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편지에는 유주와 슬기가 함께 했던 추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편지를 받는 이가 공감할 수 있게 한다.
-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편지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 편지에는 전학을 간 슬기에 대한 유주의 고마움과 그리움이 잘 나타나 있다.
- 마지막에는 편지를 쓴 날짜와 보내는 이의 이름을 써넣습니다. ○
↳ 편지의 마지막에 편지를 쓴 날짜와 보낸 이 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다.
- 공식적인 글쓰기이므로 예의를 갖춘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면 편지를 쓴 이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
↳ 이 편지의 글쓰기는 속담, 명언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25 “학교 가자는 너의 문자가 오지 않았을 때~”의 내용으로 보아, 전학을 가기 전에 슬기와 유주가 함께 등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선지 보기

- 전학을 가기 전에 슬기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
↳ 슬기는 ‘홍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흥이 많고 생일 축하 행사 때도 진행을 맡을 만큼 적극적인 아이였다.
- 유주와 슬기는 아침에 함께 등교하곤 하였다. ○
- 슬기는 작년 봄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다. ✕
↳ 다리를 다친 것은 유주이다.
- 유주는 슬기가 전학 간 후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 ✕
↳ 유주는 슬기의 블로그를 보고 슬기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 유주는 여름 방학 때 슬기와 함께 공연을 할 계획이다. ✕
↳ 유주는 여름 방학 때 슬기에게 갈 계획이다. 하지만 함께 공연을 하자는 내용은 없다. 유주는 슬기와 함께 공연을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

- 26 서 | 술 | 형 떡볶이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을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랴.”라는 속담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그리고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추어올려 준다는 의미의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관용구도 사용하였다. 한편 글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한 시간의 대화가 오십 통의 편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명언을 인용해 여름 방학 때 슬기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속담을 사용한 표현을 바르게 찾아 썼다.	
관용구를 사용한 표현을 바르게 찾아 썼다.	
명언을 인용한 표현을 바르게 찾아 썼다.	

27 ‘참외’와 ‘홍 부자’는 모두 내용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참신한 표현들이다. ‘참외’는 ‘참 외롭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유주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홍 부자’는 홍이 많고 쾌활한 슬기의 모습에서 나온 별명이다.

28 빈칸에는 큰 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외치며 축구를 하던 슬기가 없어 반 대항 축구 경기가 재미없었다는 내용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탄산음료의 김이 빠지면 맛이 없다는 것에 빗대어 “김빠진 탄산음료 같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선지 보기

- ① 눈물 젖은 찢빵 ✕
↳ 고생스러운 삶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다.
- ② 김빠진 탄산음료 ○
- ③ 날개 달린 호랑이 ✕
↳ 몹시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개와 원숭이 사이 ✕
↳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꺾다 놓은 보릿자루 ✕
↳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9 서 | 술 | 형 유주는 편지를 통해 슬기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지난 봄 자신을 도와주었던 일에 고마웠음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유주의 두 가지 감정을 포함하여 유주가 슬기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30 제시된 만평은 불꽃 축제가 끝난 뒤 쓰레기를 남기고 간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 의식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시민 의식 화려하게 폭발!”이라는 문구로 비꼬아서 풍자하고 있다.

기말 모의 평가 (2회)

본책 2 | 156~163쪽

01 ③ 02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03 ① 04 우리나라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야.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9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해 준다.
10 ① 11 ⑤ 12 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며 듣는다.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술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독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자식을 위한 것이므로 아름답다고 표현하였다. 18 ② 19 ③ 20 ③ 21 지나치게 체면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다. /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체면을 중시한다. /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허례허식에 얽매어 있다. 22 ③ 23 작가는 도둑놈이라는 말을 통해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24 ③ 25 ④ 26 ② 27 유주는 슬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으며 자신도 슬기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8 ④ 29 ① 30 ②

01 담화는 화자, 청자,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선지 보기

- ① 누나와 동생은 화자이면서 청자이다. ○
↳ 누나가 말할 때에는 누나가 화자, 동생이 청자이고 동생이 말할 때에는 동생이 화자, 누나가 청자가 된다.
- ② 담화의 내용은 ‘놀이 기구’와 관련이 있다. ○
↳ 누나와 동생은 놀이 기구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③ 담화는 화자, 청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④ “누나, 저 놀이 기구 무서울 것 같아.”는 ‘발화’이다. ○
↳ 동생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으로, 이를 발화라고 한다.
- ⑤ 누나와 동생이 하는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
↳ 누나와 동생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발화라고 하고, 이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02 서 | 술 | 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담화의 구성 요건은 통일성이다.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4층에는 제가~매장이 있습니다.”는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찾았다.	

03 ㉠에는 뒤 문장의 내용을 앞 문장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접속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 ㉡에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 표현을 넣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역접 관계로 이을 수 있는 접속 표현이 필요하다.

04 **서 | 술 | 형** 제시된 만화는 외국인인 파블로가 한국 가족의 식사 초대를 받은 상황이다. 파블로는 차린 음식이 많은데도 수민 아빠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이라고 말한 까닭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한다. 이는 파블로가 우리나라에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므로 이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수민 아빠의 말에 드러난 우리의 언어문화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05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을 나무라는 뜻으로 “지금 몇 시니?”라고 물었는데 학생은 이를 현재 시각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홉 시 삼십 분이라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의도 즉,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은 것이다.

06 (가)의 화자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묻기 위해 “어떠세요?”라고 말했고, (나)의 화자는 치료 부위가 아픈지 묻기 위해 “어떠세요?”라고 말했다. (가)의 청자는 머리 모양과 관련된 대답을 해야 하고, (나)의 청자는 치료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대답을 해야 한다.

07 제시된 만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대화를 통해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을 뿐 사회·문화적 맥락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알 수 없다.

선지 보기

- ①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
↳ 아빠와 민호는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 ② 대화가 이어지면서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뀐다. ○

↳ 말을 주고받으며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③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좋아졌다. ○

↳ 아빠와 아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

④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고 있다. ○

↳ 대화 참여자인 아빠와 아들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하고 있다.

⑤ 대화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8 공감하며 듣는 방법에는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가 있다. 소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기’,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대화의 맥락에 맞는 표정 짓기’ 등이 있으며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기’,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해 말해 주기’ 등이 있다.

09 **서 | 술 | 형** “저런,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은 모두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말이 이어 갈 수 있게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밑줄 친 말의 역할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10 학생 1과 학생 2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인데 두 사람은 의미 공유가 되지 않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11 이모가 조카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트라우마’라는 말을 어렵게 설명하여 조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2 **서 | 술 | 형** 제시된 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글에서 제시한 잘 듣는 방법을 적절히 서술하였다.	
2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3 (나)는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등이 지닌 부정적 특성이 소중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지 보기

- ① (가)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잇었노라’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미래의 어느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먼 훗날’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③ (나)는 자연과 대조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 ④ (나)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복어 등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말하는 이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나)는 드러나 있지 않다. ○
↳ (가)는 ‘나’라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 14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를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이 시는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가 반복되지 않는다.
- 15 (나)의 주된 표현 방법은 ‘역설’이다. 이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통해 얻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보기>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역설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

선지 보기

-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 직유법,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 직유법,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 아아 누구던가
↳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 16 (가)에서 ㉠ “잇었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반어를 써서 나타낸 것이다.
- 17 서 | 술 | 형 (나)에서 화자는 친구가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것을 보고 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식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독한 마음’이라고 한 이유와 ‘아름답다’고 표현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18 이 글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나)에서 신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양반 신분을 사고팔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9 (가)에서 양반의 아내는 양반이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그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 20 부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 뒤, 그 신분을 이용해서 양반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 21 서 | 술 | 형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 양반들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담배를 빨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체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사소한 행동조차 격식에 따르는 양반들의 허세를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다)에서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 두 가지를 적절히 제시하였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 22 ㉤은 권력을 세습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23 서 | 술 | 형 양반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도둑놈”이라는 말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작가는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함으로써 양반이 가진 부도덕과 횡포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마)에서 양반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 단어를 찾았다.	
작가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24 제시된 시는 ‘달리기’ 대신 ‘조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찬물로 씻는다’ 대신 ‘냉수로 샤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고유어가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는 모습을 풍자한 것이다.

25 이 글은 유주가 전학 간 슬기에게 쓴 편지로, 유주가 전학을 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슬기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이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인물인지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없다.

27 **서|술|형** [A]는 유주가 다리를 다쳤을 때 슬기가 옆에서 도와주었던 경험이다. 유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슬기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자신도 슬기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확인 ☒
유주가 느낀 마음 두 가지를 적절히 서술하였다.	
[A]를 통해 생각한 바를 밝혔다.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28 ㉔은 속담이 아니라 관용구 “비행기를 태우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이 관용구를 활용하여 자신이 진심으로 슬기를 칭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9 ‘아주 하찮은 일’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새 발의 피”가 있다. 이 속담은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선지 보기

- ① 새 발의 피지. ○
- ② 꿈보다 해몽이 좋지. ✕
↳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지. ✕
↳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 ④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 ✕
↳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공언히 의논함을 이르는 말.
- ⑤ 큰물에 큰 고기가 노는 일이지. ✕
↳ 활동 무대가 커야 통이 큰 사람도 모이고 클 수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요컨대”라는 말 뒤에 “개밥에 도토리”라는 속담을 써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발표 불안감 이기기

1

발표하기 전에 불안하다면, 자기 암시를 하라!

“좋아, 이제 나는 내 생각을 남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어.”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난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료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

위와 같이 자기 암시를 하면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솟아날 거예요!

2

발표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느낀 순간 1~2초가량 가벼운 미소를 짓고, 큰 실수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큰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발표합니다!



3

준비를 충실히 하라!

발표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4



발표 기회를 자주 얻어라!

발표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두려움과
긴장이 줄어듭니다. 발표 기회가 있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나는 발표를 잘할 수 없어.’,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잘못한다고 생각할 거야.’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
을, ‘나는 발표를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은 내가 발표
를 잘한다고 생각할 거야!’ 등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
으로 바꿉니다.



6

불안감을 이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자기 암시를 하거나 가벼운 체조 등으로 긴장을 풀
어 주면 발표 불안감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성공적인 발표를 마친 뒤 자신의 모습과 마음이 어떠
할지 상상해 보면 발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A series of 15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